

아동중심실천연구

Journal of Association Of Child-centered Practice

제18권 제2호

- 어린이집 초임원장의 평가제 참여 경험과 의미

박미원, 이유미

-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이 자녀권리존중에 미치는
영향 : 양육참여의 매개효과

변성은

-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실행과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

정명희, 서혜전

2023년 12월

아동중심실천연구

제18권 제2호

한국아동중심실천학회

차 례

제18권 제2호 / 2023. 12. 31

논문 제목	저자
어린이집 초임원장의 평가제 참여 경험과 의미	박미원, 이유미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이 자녀권리존중에 미치는 영향 : 양육참여의 매개효과	변성은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실행과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	정명희, 서혜전

어린이집 초임원장의 평가제 참여 경험과 의미*

박미원**, 이유미***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어린이집 초임원장의 평가제 참여 경험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그 의미를 파악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평가제를 처음 경험한 초임원장 5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여 내러티브 탐구 절차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였다. 자료수집은 2022년 10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연구 참여자 별로 2회 이상 개별 및 그룹 심층 인터뷰를 하고 연구 참여자들의 평가제 참여 일정 및 계획, 준비사항 등이 담긴 문서를 수집하였다. 연구 결과 어린이집 초임원장의 평가제 참여 경험의 의미는 '한번은 넘어야 할 산', '리더십은 단단한 나로부터', '다음 단계로 오르는 첫 번째 계단'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에서 어린이집 초임원장은 평가제 참여 경험을 통해 원장으로서의 전문성 향상과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동시에 경험하였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어린이집 초임원장의 평가제 참여 경험의 어려움과 긍정적인 상황을 드러냄으로써 어린이집 초임원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제도적 지원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초자료 제공으로서 의의를 갖는다.

주제어: 어린이집, 초임원장, 평가제, 내러티브 탐구

※ 투고일 : 2023년 10월 31일 / 수정본 접수일 : 2023년 12월 11일 / 게재확정일 : 2023년 12월 18일

* 본 논문은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

** 신흥 어린이집 원장(pmw0319@hanmail.net)

***가천대학교 교육대학원 부교수, 교신저자(sizuku@gachon.ac.kr)

I. 서론

2021년도 보건복지부의 보육통계를 살펴보면 0세~5세의 모든 연령에서 어린이집 이용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육아정책연구소, 2022). 이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보육서비스의 질에 관한 관심 또한 높아졌으며 국가 차원에서 어린이집의 양적·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는 1991년 ‘영유아보육법’을 제정하고 공포하면서 보육사업을 국가적 차원의 정책 사업으로 추진해 왔다. 그리고 2004년 영유아보육법 개정과 더불어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및 보육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보편적 보육개념의 도입, 정부의 예산지원 확대, 보육시설 설치의 인가제로의 환원,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 도입,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자격제도 도입 등의 관리·감독·강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 왔다(지성애, 2010). 그동안은 어린이집의 양적인 확충에만 치우쳐 있었지만 2005년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도입하고 200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며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질 관리와 유지를 위한 노력이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평가인증제도가 자발적인 신청으로 운영됨에 따라 미인증 어린이집으로 인한 질 관리 사각지대 문제가 발생하였고 최근 아동 권리 보호, 아동학대 예방,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의 증가로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질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한국보육진흥원, 2022). 이에 2018년 12월 11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평가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2019년 6월 12일부터 어린이집 평가제가 시행되었다. 어린이집 평가제가 의무제로 전환되었기에 모든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 평가제에 참여해야 하는 의무를 갖는다. 따라서 어린이집을 처음 맡아 운영하는 초임원장은 어린이집 평가제의 평가 주기에 따라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기에 원장 임용과 동시에 어린이집 평가제 참여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국가의 관심과 노력이 지속되어 아무리 좋은 보육환경이 갖추어진다고 하더라도 어린이집이 영유아와 학부모에게 적합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보육서비스의 질은 제자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영유아의 양육과 교육을 책임지고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기여 해야 한다는 목적을 지닌 어린이집, 그중에서도 어린이집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원장의 역할과 이러한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원장의 전문성은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변인이다(김희숙, 2018). 실제로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을 대표하고 영유아의 보육뿐 아니라 시설운영관리, 보육교직원과의 관계 수립, 운영지식과 기술, 공적관계형성, 직업윤리 등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어린이집 운영과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에 있어서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이 중요한 것이다.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은 자신의 일에 대한 신념, 오랜 기간 자신의 직업에 헌신하는 태도, 전문가로서 지닌 지식에 의해 결정할 자유가 있다고 믿는 태도이다(유지연, 황혜정, 2014; 주희경, 2017). 원장의 전문성은 평가제의 수행 경험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다(김희숙, 2018). 따라서 어린이집 평가제 참여 경험과 원장의 전문성

간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에 관한 연구는 주로 원장의 리더십(김태선, 2009; 유선영, 2011), 어린이집 운영(김수연, 나종혜, 2008), 역할수행(이경희, 2008; 조은정, 박은영, 김희정, 2008) 등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대부분이며 원장을 대상으로 한 원장 전문성에 관한 연구는 원장의 역할수행과 전문성 간의 관계를 살펴본 지성애(2001)의 연구뿐이었다. 최근 들어 어린이집 원장의 리더십, 정서지능, 전문성 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한 연구(이유미, 김선정, 2021), 어린이집 원장의 배경 변인에 따른 전문성을 비교한 연구(임해진, 2015), 어린이집 원장의 리더십 유형과 자아존중감이 원장의 전문성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연구(김희숙, 2018) 등이 진행되고 있으나 어린이집 원장의 배경 변인과 전문성 간의 관계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것에 불과하여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한 전문성에 관한 연구를 질적으로 고찰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어린이집 초임원장은 운영 경험이 없거나 부족하기 때문에 개인적 그리고 직무수행 차원에서 긍정적·부정적 경험을 하게 되면서 보육 현장과 상충하는 가치로 인한 현실적 괴리감과 운영관리의 미숙함으로 빚어지는 시행착오를 겪으며 자존감의 하락, 역할수행에 대한 부담감, 교직원들과의 마찰이나 부모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 겪는 상처,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유대 관계 형성의 어려움, 재정관리에 대한 부담감, 시설유형에 따른 운영관리의 어려움 등 심리적 부담감과 회의감 등의 다양하고 총체적인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구수현, 2011; 김용희, 황혜경, 정미미, 2012; 김은희, 송승민, 2010; 김정화, 2014; 오태희, 이대균, 2017; 이승연, 2019; 이은주, 2017; 황혜정, 2018). 그러나 현재까지 진행된 어린이집 초임원장 관련 연구는 주로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의 어려움과 직무에 관련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어린이집의 세세한 구분과는 관계없이 원장의 직무를 최초로 맡아 겪는 다양한 경험과 어려움을 심층적으로 다루는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수준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원장 경력이 많을수록 전문성이 높게 나타났고, 경력 5년 이하인 원장의 전문성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이미화, 장명림, 신나리, 김문정, 2007).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통하여 어린이집 운영 경력이 낮은 초임원장은 경력 원장보다 전문성 수준 또한 낮기 때문에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어린이집 초임원장을 위한 지원과 관련된 연구로는 어린이집 초임원장의 운영관리 지원을 위한 조사 및 실행(변선영, 황해익, 2019; 2020; 2021) 연구뿐이다. 게다가 기존 선행연구로는 어린이집 초임원장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질 향상의 핵심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어린이집 초임원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삶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어린이집 초임원장은 원장으로서의 업무를 명확하게 알고 업무에 대한 참고 자료를 습득하여 원장으로서의 전문성을 습득해 나가야 하는 역할을 갖기 때문이다(정주혜, 2018; 차미영, 손원경, 2010). 초임원장의 전문성 향상에 있어 주목해야 할 점은 초임원장이 겪을 수 있는 긍정적·부정적 경험과 그들이 놓인 상황과 맥락 이해를 통해 다양한 직무를 핵심 직무로 재설계하여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변선영, 황해익, 2021). 이는 어린이집 원장으로

서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을 바탕으로 어린이집 평가제의 시행착오를 경험한 실천적 지식을 형성하는 과정이며 이후 경력 원장으로서의 전문성 향상에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린이집 원장과 평가제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어린이집 원장은 평가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으나 평가제 준비과정에 대한 어려움으로 일회성의 평가가 아닌 유지를 위한 평가가 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서미선, 2021; 정진이, 2021; 진은영, 이경화, 2020; 최나래, 2021). 원장의 직무스트레스 하위요인 중 평가제 스트레스가 가장 높고(이미정, 2019) 평가제 준비과정은 피하고 싶고 고단한 직무수행 경험이기 때문에 어린이집 평가제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김은아, 2022). 즉, 어린이집 원장은 평가제를 긍정적으로 인식하지만, 평가제 참여 과정을 힘든 업무로 여기며 평가제의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볼 때 어린이집 초임원장의 평가제 참여 경험은 어린이집 초임원장이 현장에서 갖는 긍정적·부정적 경험을 살펴볼 수 있는 직무 경험이며 그들의 핵심 직무를 재설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기존의 선행연구(변선영, 황해익, 2019; 조혜진, 김수연, 2013)처럼 양적연구로는 전반적인 인식 조사에 불과하여 어린이집 초임원장이 놓인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을 파악하기에는 한계점을 갖는다. 이에 어린이집 초임원장이 겪을 수 있는 긍정적·부정적 경험과 그들이 놓인 상황과 맥락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질적연구의 내러티브 탐구 방법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내러티브 탐구는 인간의 경험에 대해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간의 경험에 관한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그 이야기를 탐구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Clandinin & Connelly, 2000). 김영천(2017)은 변화의 시기에 일어난 사건들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고 새로운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관, 지식, 기능의 학습을 필연적으로 동반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어린이집 초임원장이 보육교사 시절 평가제에 참여했던 경험을 넘어 원장으로서 어린이집 평가제에 처음 참여한 경험 이야기는 그들의 현실을 이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을 되돌아보고 삶을 재조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원장으로서 평가제에 처음 참여한 어린이집 초임원장의 평가제 참여 경험을 심층적으로 듣고 다각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어린이집 초임원장에게 평가제 참여 경험이 주는 의미는 어떠한지 파악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어린이집 초임원장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과 상황을 이해하고 그들의 실제적인 요구가 무엇인지 파악하여 어린이집 초임원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제도적 지원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한다는 가치를 갖는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에 따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어린이집 초임원장에게 평가제 참여 경험의 의미는 어떠한가?

II. 연구 방법

1. 연구자 및 연구 참여자

1) 연구자

연구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 경력 2년 차 초임원장이다. 원장으로 임용된 지 5개월 만에 어린이집 평가제에 참여하며 원장의 직무를 파악하기도 전에 평가제부터 준비해야 하는 상황을 경험하였다. 원장으로서 처음 경험하는 평가제의 준비과정은 교사 시절의 평가인증 참여 경험과 달랐으며 어렵고 고단하였다. 그러나 평가제를 마치고 나서 원장으로 좀 더 성장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 연구자의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어린이집 초임원장이 평가제를 경험하며 원장으로서 무엇을 느끼고 어떤 가치관의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평가제 참여 경험이 어린이집 초임원장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하였다.

2)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자신의 삶에 대해 끊임없이 말하고, 이를 다시 이야기하는 형식의 내러티브 탐구 연구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이 경험은 연구자 혼자만이 아닌, 연구 참여자와 함께 경험하는 연구의 소재이자 과정이다. 이에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 선정 시 연구자와의 친밀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참여시 소요되는 시간적 부담감도 고려하여 연구에 적극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우선으로 하였다.

연구 참여자 선정은 원장으로서 평가제를 처음 경험한 초임원장으로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와 공통된 경험을 가질 가능성이 크고 그들의 경험을 들었을 때, 상황을 공감하고 이해하기에 적합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한정하여 연구자와 친분이 있는 원장 그리고 그들의 동료 원장 추천으로 눈덩이 표집을 하여 예비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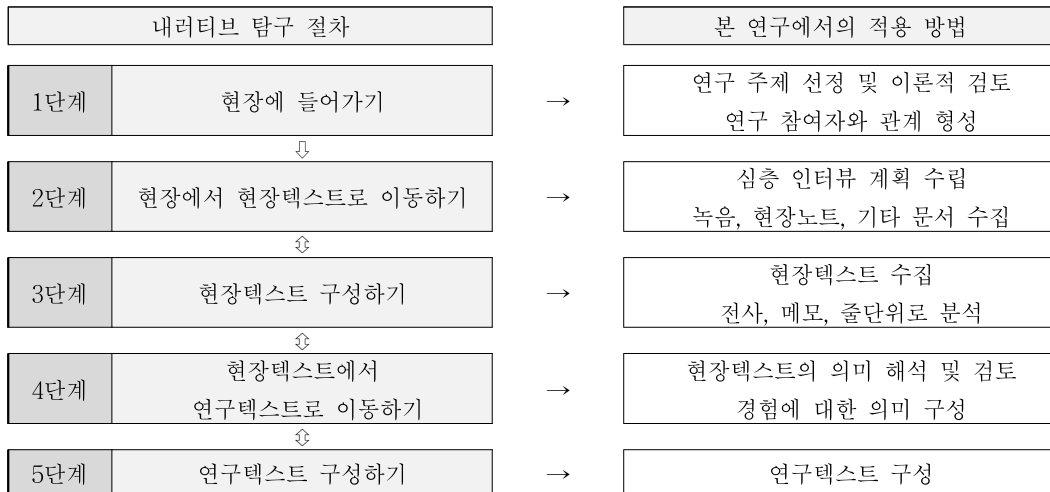
예비 참여자로 선정한 원장들에게 전화와 연구 참여 동의서를 통해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한 후 현재 초임원장으로서의 삶을 돌아보고 초임원장을 위한 지원이 마련되길 희망하며 연구에 적극 참여 의사를 밝힌 다섯 명을 연구 참여자로 확정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징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징

이름	연령 (성별)	원장 경력	총 보육 경력	기관 유형	최종학력	교사시절 평가제 참여횟수	평가제 참여시기	비고
박원장	만47세 (여)	2년	21년	국공립	대학원 석사졸업	5	2021년 12월	
임원장	만40세 (여)	4년	13년	국공립	대학원 석사졸업	1	2022년 10월	원장으로 평가제에 처음 참여
조원장	만54세 (여)	1년	18년	국공립	대학교 졸업	4	2022년 06월	
하원장	만47세 (여)	1년	26년	국공립	대학교 졸업	4	2022년 10월	
홍원장	만43세 (여)	1년	18년	국공립	대학원 석사졸업	4	2022년 12월	

2. 연구 절차

본 연구의 연구 수행 절차는 Clandinin과 Connelly(2000)가 제시한 내러티브 탐구과정을 고려하여 5단계로 연구자가 재구성하였다. 이 각각의 단계는 명확히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단계와 단계가 서로 겹치거나 중복될 수도 있다. 따라서 각 단계의 수행과제에 집중하기보다는 연구 과정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따라 각 단계를 오가며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수행 절차별 내용은 아래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 수행 절차별 내용

3. 자료수집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의 평가제 참여 경험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듣고 평가제 참여 경험을 통해 어떠한 반성적 사고와 성찰을 하였는지에 관한 자료가 필요하였다. 이를 위하여 연구 참여자들과 심층 인터뷰를 하고 연구 참여자들의 평가제 참여 일정 및 계획, 준비사항 등이 담긴 문서를 수집하였다. 또한 연구자는 심층 인터뷰를 통해 느낀 점을 연구자 저널로 작성하였다. 자료수집 방법과 수집된 자료 목록은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자료수집 방법과 수집된 자료 목록

유형	수집 방법	수집 자료
개별 인터뷰	연구 참여자 별 2회 이상 심층 인터뷰 반구조적 인터뷰 녹음 및 전사 연구 참여자의 행동, 표정 등을 기록	녹음자료 및 전사본, 현장 노트
그룹 인터뷰	2명씩 2그룹으로 각 1회 심층 인터뷰 반구조적 인터뷰 녹음 및 전사 연구 참여자의 행동, 표정 등을 기록	녹음자료 및 전사본, 현장 노트
전화, SNS 이메일	인터뷰 후 보충할 부분에 대한 추가 질문 전화, SNS, E-mail 수신	전화, SNS, 이메일 기록자료
연구자 저널	인터뷰를 통해 느낀 점을 저널로 작성	연구자 저널
기타 문서	연구 참여자에게 평가제 참여와 관련된 문서를 요청하여 수집	교직원 회의록, 자체점검보고서, 평가제 결과표, 교직원 면담 문답표 등

자료수집을 위한 심층 인터뷰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약 7개월간 진행되었고 반구조화된(semi-structured) 인터뷰 및 자료수집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심층 인터뷰는 연구 참여자별로 2회의 개별 인터뷰와 참여자 2인을 1그룹으로 구성하여 각 1회의 그룹 인터뷰로 계획하여 대면으로 이루어졌다. 심층 인터뷰 시작 전에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 동의서에 서명을 받아 동의를 확인한 후 진행하였다. 인터뷰의 장소는 연구 참여자가 가장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장소에서 진솔한 이야기가 이루어지도록 연구 참여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연구 참여자의 어린이집 내 원장실 그리고 연구 참여자의 어린이집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1시간 ~ 1시간 30분 정도 대화하듯 진행하였다. 심층 인터뷰의 일정 및 수집된 자료 분량은 아래의 <표 3>과 같다.

12 아동중심실천연구 제18권 제2호

<표 3> 심층 인터뷰 일정 및 수집 자료 분량

인터뷰 유형	연구 참여자	인터뷰 일정	수집 자료 분량	
개별 인터뷰	박원장	1차	2022년 12월 27일	전사 자료 A4용지 13페이지
		2차	2023년 01월 19일	전사 자료 A4용지 11페이지
	임원장	1차	2022년 12월 16일	전사 자료 A4용지 10페이지
		2차	2023년 01월 19일	전사 자료 A4용지 10페이지
	조원장	1차	2022년 12월 27일	전사 자료 A4용지 11페이지
		2차	2023년 01월 19일	전사 자료 A4용지 12페이지
	하원장	1차	2022년 12월 01일	전사 자료 A4용지 10페이지
		2차	2023년 01월 19일	전사 자료 A4용지 10페이지
	홍원장	1차	2022년 12월 21일	전사 자료 A4용지 9페이지
		2차	2023년 01월 18일	전사 자료 A4용지 12페이지
		전 체	보충 질문 인터뷰 - 12월 ~ 4월 -	
	그룹 인터뷰	임원장, 홍원장	2023년 04월 17일	전사 자료 A4용지 20페이지
박원장, 하원장		2023년 04월 24일	전사 자료 A4용지 13페이지	

심층 인터뷰의 질문내용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공동연구자와 협의하여 작성한 반구조화된 면담지를 연구 참여자에게 e-mail로 발송하여 응답하게 하고 응답한 질문지를 기초로하여 보다 심도 있고 구체화 된 심층 인터뷰를 하였다. 추가 질문이 제기될 경우 추가 인터뷰를 하였다. 심층 인터뷰의 질문내용은 아래의 <표 4>와 같다.

<표 4> 심층 인터뷰의 질문내용

범주	질 문 내 용
평가제 참여 경험과 의미	교사 시절 평가제 준비 경험은 어떠했나요?
	원장 임용 후 평가제를 앞두고 있을 때의 마음은 어떠했나요?
	원장 임용 후 평가제 준비과정은 어떠했나요?
	원장 임용 후 평가제 당일은 어떠했나요?
	원장 임용 후 평가제를 마친 느낌은 어떠했나요?
	평가제를 마친 후 원장으로서의 보람은 무엇인가요?
	평가제 참여 경험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으신가요?
	원장님에게 평가제는 어떤 의미였나요?

4. 자료 분석 및 타당성

심층 인터뷰의 내용은 모두 녹음하고 전사하였으며 실용적 절충주의에 기초한 포괄적 분석 절차의 6단계(김영천, 2017)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1단계 ‘자료 읽기 및 정리’에서는 심층 인터뷰의 전사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고 분석하고 저장하였다. 2단계 ‘분석적 메모 쓰기’에서는 심층 인터뷰를 마친 후 느낀 점을 연구자 저널로 기록하였다. 3단계 ‘1차 코딩’에서는 전사 자료를 토대로 개방 코딩을 시행하였다. 이때, 필요한 자료와 필요치 않은 자료,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는 자료와 그렇지 않은 자료를 구분하는 작업을 하였다. 4단계 ‘2차 코딩’에서는 1차 코딩에서 추출된 개념들과 범주를 대조, 통합, 재구성, 삭제, 이동을 통해 하위범주로 통합하고 새로운 주제를 발견하여 이것을 다시 일반범주로 묶어 냈다. 5단계 ‘3차 코딩’에서는 최종 범주 및 주제를 생성하였다. 6단계 ‘연구 결과 재현’에서는 최종 주제에 이론, 명제 제시 등으로 의미를 정리하였다.

연구자는 삼각검증방법(Triangulation)을 통한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하여 연구 참여자들에게 자료를 전사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논의의 여지가 있는 상황에 대한 기록을 보여주고 수정하거나 지우고 싶은 내용 등이 있는지 확인받는 과정을 거쳤다. 그리고 질적연구 수행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1인과 주기적으로 자료를 검토하고 협의하는 동료 확인(Peer Checking)의 과정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분석 과정을 통하여 최종적인 결과 범주를 도출하였으며 최종 결과 범주는 아래의 <표 5>와 같다.

<표 5> 결과 범주

주요범주	일반범주	하위범주
한번은 넘어야 할 산	건뎌야 하는 왕관의 무게	무조건 해야 하는 부담감 결과에 대한 책임감
	끊이지 않는 변수의 발생	코로나19 사태 갑작스런 긴급보육과 연장보육
	과거는 미래를 여는 열쇠	외부 조력으로 인한 혼란 교사 시절 싫었던 잦은 야근
리더십은 단단한 나로부터	원장으로서의 역량진단	원장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원장의 리더십 재설정
	그때는 알지 못했던 원장의 세계	전체를 다 살펴야 하는 부담감과 업무 과중 갑작스러운 교사 이직에 대한 두려움
	정서적 위로가 되어주는 동료 원장들	동기 원장들과의 만남 정서적 교류 모임
다음 단계로 오르는 첫 번째 계단	초보가 아닌 프로가 되기 위한 노력	교사보다 더 많이 아는 원장 지속적인 공부가 필요한 원장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기회	어린이집 운영 기준 설정 교사들과 좋은 관계 형성을 위한 성찰과 노력

Ⅲ. 연구 결과

1. 한번은 넘어야 할 산

1) 견뎌야 하는 왕관의 무게

연구에 참여한 어린이집 초임원장에게 평가제 참여 경험에 대해 질문을 했을 때, 마치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기억인 듯 큰 숨을 한 번 들이마신 후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의 이러한 모습에서 초임원장이 갖는 사명감과 책임감이라는 부담감의 무게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초임원장으로 행정업무가 미숙한 상태에서 늘 상 긴장하고 있는데 평가제까지 해야 하니까 뜰
러스알파로 더 불안했죠.

(임원장, 2022. 12. 16. 1차 개별 인터뷰)

초임원장이라서 어린이집 운영 자체를 해본 적이 없어 모든 게 다 시작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선생님들은 다 나한테 얘기하고 묻죠. 게다가 평가제는 이제 의무 사
항이기 때문에 꼭 참여해야 하고 그 결과는 제가 다 책임져야 하니까 부담스러웠죠.

(하원장, 2022. 12. 01. 1차 개별 인터뷰)

이처럼 초임원장들은 행정적인 업무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의무적으로 참여해야만 하는 평
가제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다. 이승연(2019)의 연구에서도 어린이집 초임원장이
운영자로서 평가인증을 처음 받기 때문에 갖는 막연한 두려움과 스트레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
다고 말하였는데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들 또한 무조건 해야만 하는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장으로 임용되면 어린이집 시설부터 모든 것을 임용된 그 순간부터 혼자 해야 해요 초임원장을
위한 지침이나 안내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멘토나 조력자가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혼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해나가야 했죠. 그러다보니 안정적이지도 못하고 진짜 많이
힘들었어요.

(임원장, 2022. 12. 16. 1차 개별 인터뷰)

임원장은 평가제를 무조건 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기 원하였다. 교사
시절에는 멘토 교사나 선임 교사의 도움을 받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수월하게 업무를 할 수

있었지만, 원장이 되고 나서는 선임 원장이나 멘토 원장이 없기에 혼자 새로운 업무를 해나가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표현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는 어린이집 초임원장들이 멘토링 제도를 희망한다(이은주, 박수경, 2018)는 연구 결과와 같은 맥락이다.

평가제 결과가 2년에서 3년 정도 가잖아요 우리 어린이집에 꼬리표고 내 성적표 같은 느낌이
예요.

(임원장, 2022. 12. 16. 1차 개별 인터뷰)

국공립에서는 A등급이 안 나오는 데가 없거든요 그리고 B등급을 받으면 그 결과가 기록에 다 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담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조원장, 2022. 12. 27. 1차 개별 인터뷰)

또한 임원장과 조원장은 평가제 참여는 물론 평가제 결과에 대한 이중 고통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평가제의 결과가 외부로 공개되는 것에 부담감을 토로하였다. 초임원장이 갖는 평가제 참여 결과는 기존 원장이 갖는 평가제 점수와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 어쩌면 초임원장 입장에서는 운영자로서 미숙함이 평가제에서의 좋은 점수획득으로 전문성을 가진 원장으로 인정받는 기회의 의미를 갖기에 결과 점수에 대한 부담감이 더 클지도 모른다. 이승연(2019)은 초임원장에게 꼭 필요한 욕구로 인정욕구를 뽑았다. 이는 초임원장이 원장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심리적 충족으로 원장으로서의 직무만족감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즉, 원장으로서 경험하는 첫 평가제에서 자신의 전문성을 높은 평가 점수로 확인받고 초임원장들이 겪고 있는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감에서 벗어나 안정감을 찾는 기회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끊이지 않는 변수의 발생

본 연구에 참여한 초임원장들은 2022년 코로나19 사태가 매우 심각했던 시기에 평가제에 참여하였다. 손희나(2020)는 이 시기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린이집은 운영비와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긴급보육 상황에서 서류의 과중으로 인한 어려움과 정부의 지침과 현장의 괴리 속에서 혼란을 겪었다고 말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평가제에 참여한 초임원장들이 겪었을 어려움은 몇 배는 더 심했을 것이라고 짐작하게 한다.

코로나가 한참 심했을 때, 교직원 5명이 코로나에 걸렸었어요 조리사님이랑 보조교사가 출근을 못
하게 되니까 오전에는 선생님들이 통합해서 보육하고 전 그동안 식사 준비를 했어요.

(홍원장, 2023. 04. 17. 그룹 인터뷰)

16 아동중심실천연구 제18권 제2호

저희 주임 선생님은 많이 아프셨어요 코로나도 두 번이나 걸리고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계속 아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임 선생님의 업무까지 더 많이 해야 했죠.

(임원장, 2023. 04. 17. 그룹 인터뷰)

이렇듯 심각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갑작스러운 교직원의 공백이 생기게 되고 어린이집에 생긴 문제들은 결국 원장이 해결해야 하는 몫이었다.

교사들이 연차를 가면 제가 보육실에 들어가서 보육해요 그래서 제 일을 하기 위해 아침에 조금 일찍 출근하죠. 아침에 일을 안 해놓으면 일이 많이 밀려요 그래서 그 시간을 활용해요.

(홍원장, 2023. 04. 17. 그룹 인터뷰)

박원장과 인터뷰를 하고 있을 때, 원장실 밖에서 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박원장이 바로 나가서 아이를 안고 다시 원장실로 들어왔다. 오늘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 우는 것 같다며 아이를 안고 한참 동안 달래주었다. 원장은 아이들을 보지 않아 좋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그러나 그 말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렸다. 원장은 반은 맞지 않은 뿐 하루 종일 어린이집 전체 원아의 상황을 살피고 있으며 박 원장처럼 필요에 따라 보육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자 현장노트, 2023. 04. 28.)

실제로 어린이집 초임원장들은 원장의 업무 외에도 어린이집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임원장은 이런 원장의 모습을 ‘프rogram머’라고 표현하였다. 연구자는 임원장과 홍원장에게 “그렇게 모든 업무를 다 하다 보면 원장의 업무가 밀리지 않아요?”라고 물으니 “그래서 야근을 하는 거예요”라고 말하며 웃었다. 연구에 참여한 초임원장들은 교사 시절 평가제에 참여할 때 야근하는 것이 힘들었다고 이야기하였지만, 원장으로서의 야근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는 교사와 원장의 역할과 책임감의 차이가 업무를 대하는 태도의 차이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이해할 수 있다.

연구에 참여한 초임원장들은 미리 계획되지 않았던 긴급보육과 연장 보육 때문에 평가제를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다고 공통적으로 말하였다.

연장 보육이 생기면서 아이들이 예전에 비해서 어린이집에 머무는 시간이 너무 길어졌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업무를 준비할 시간이 부족해요. 평가제 때도 그래서 준비할 시간이 없었어요.

(홍원장, 2023. 04. 17. 그룹 인터뷰)

평가제 준비할 때 선생님들한테 업무를 주지 못했던 이유 중에 제일 큰 게 연장 보육이예요. 아이들이 5시가 넘어야 집에 가고 그런데 선생님들은 6시면 퇴근을 시켜야 해요 그러면 업무를 언제 하나요? 청소를 언제 하나요? 서류는 언제 하나요?

(임원장, 2023. 04. 17. 그룹 인터뷰)

어린이집 평가제에서 반영되고 있는 영유아 놀이 중심 보육 실천을 위해서는 단기간의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라 보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교사 교육이 필요하다(최나래, 2019). 그러나 현장에서는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긴급보육 신청과 연장 보육으로 교사들이 평가제 지표 교육을 받는 시간을 마련하는 것조차 힘들었다고 말한다.

3) 과거는 미래를 여는 열쇠

연구 참여자 하원장과 박원장은 교사 시절 평가인증에 참여할 때 자신이 느꼈던 어려움을 기억하며 그때와는 다른 환경에서 평가제를 준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하였다. 특히 외부 조력 후 원장의 일관성 없는 지시가 평가제 준비에 가장 큰 혼란을 초래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교사 때 느낀 게 뭐냐면 평가지표 컨설팅을 받다 보면 오히려 더 혼란스럽고 선생님들이 더 피곤해졌어요 (중략) 원장님은 다른 어린이집에 물어보고 “이거 바뀌라, 저거 바뀌라” 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저는 외부 컨설팅을 안 받았어요.

(하원장, 2022. 12. 01. 1차 개별 인터뷰)

저는 교사 때 원장님들이 다른 어린이집에서 들었던 그 어린이집의 방식을 자꾸 얘기하시는 것, 그리고 일지를 뒤집고 바꾸는 것, 그런 것들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평가제 준비할 때, ‘일지만 바꾸지 말자’ 이게 제 주의였어요 그래서 일지는 바꾸지는 않았어요.

(박원장, 2022. 12. 27. 1차 개별 인터뷰)

하원장과 박원장은 정확한 이유도 모른 채 같은 일을 반복해야 했던 교사 시절의 어려웠던 경험을 지금의 교사들이 하지 않도록 외부 조력을 받지 않고 평가제를 준비하고 참여하였다.

사실은 제가 교사 때 평가인증에 참여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맨날 야근하고 늦게까지 남아서 일하는 게 스트레스였고 가장 힘든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원장으로 평가제 하면서는 ‘선생님들 업무를 최대한 과중 되게 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근이 있었지만 최소한으로 하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임원장, 2022. 12. 16. 1차 개별 인터뷰)

또한 임원장은 교사 시절 평가제 준비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으로 잦은 야근이라고 말한다. 임원장의 이러한 경험은 원장으로 평가제를 준비할 때 야근을 최소화하는 노력에 도움이 되었다.

제가 교사 시절 평가인증에 참여하며 많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선생님들한테 불필요한 일은 시키지 않고 최소로 간단하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 했어요.

(조원장, 2022. 12. 27. 1차 개별 인터뷰)

교사 시절 평가인증을 할 때 원장님이 저한테 시켰던 일 중에 기분 나빴던 건 교사들한테 안 시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외벽 청소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직접 했어요.

(홍원장, 2022. 12. 21. 1차 개별 인터뷰)

이처럼 초임원장들은 과도한 업무 속에서도 교사 시절 자신의 어려웠던 경험을 교사들이 똑같이 겪지 않도록 교사들이 느낄 어려움을 공감하며 이전보다 좋은 환경에서 평가제를 준비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

Dewey는 모든 경험은 앞서 지나간 경험에서 무엇인가 영향을 받으며 그 이후에 하게 되는 경험의 질을 어떤 식으로든 변화시킨다고 하였다(김은아, 2022). 즉, 연구에 참여한 초임원장들이 교사 시절 평가인증에 참여했던 경험은 초임원장으로서 평가제를 준비하고 진행하는데 중요한 경험적 지식이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적 지식을 바탕으로 외부 조력 보다 각자의 어린 이집 상황에 맞는 자체교육과 끊임없는 주관적 학습을 통해 혼란을 최대한 줄이고자 하였다. 이러한 초임원장들의 노력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야근 없이 평가제를 준비하는 환경을 만들 수 있었다.

2. 리더십은 단단한 나로부터

1) 원장으로서의 역량진단

연구에 참여한 초임원장들은 교사에서 원장으로 역할이 바뀐에 따라 교사 때는 주어지지 않던 원장의 책무성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다. 어쩌면 그들은 평가제 참여 과정과 결과를 통하여 그동안 의구심이 들던 원장으로서의 전문성과 자질 그리고 리더십을 확인하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연구자는 그들의 목소리에서 평가제 결과를 확인하고 나서 원장의 역할수행에 대한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일할 때 내가 원장으로서 잘하고 있나? 잘못하고 있나? 뭐를 안 하는 거지? 그런 의문을 항상 갖게 하죠. 가끔은 내가 놓치고 있는 일이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될 때도 있어요.

(조원장, 2022. 12. 27. 1차 개별 인터뷰)

이번 평가제는 제가 원장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총괄해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가제 결과를 받고 나서 거기서 오는 성취감이나 만족감 이런 것이 꽤 컸던 것 같아요.

(임원장, 2022. 12. 16. 1차 개별 인터뷰)

평가제가 일단은 저의 1년 사이를 조금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어요. ‘내가 교사들한테 리더 역할을 잘해왔나?’, ‘내가 내 일은 잘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 좋았어요.

(홍원장, 2022. 12. 21. 1차 개별 인터뷰)

조원장과 임원장 그리고 홍원장은 평가제가 곧 원장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평가 결과를 확인한 후 뿌듯함과 성취감을 느끼고 있었다. 이는 이미정(2019)의 연구에서 어린이집 원장의 사회적 지지가 증대하면 심리적 소진이 감소한다고 하였으며 어린이집 원장의 사회적 지지 하위요인 중 평가적 지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초임원장이 평가제를 통하여 국가 수준의 평가적 지지를 받음으로 원장으로서의 전문성을 확인하고 정체성을 확립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어린이집 운영하면서 무조건 교사 입장만 생각할 순 없어요 교사들 하나하나의 생각을 잘 이해해가면서 원장으로서 중심을 잘 잡고 교사들과 같이 융화되어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원장, 2023. 01. 19. 2차 개별 인터뷰)

평가제는 교사의 업무 부담의 증가로 원장과 교사 간의 마찰이 생길 수 있다(이승연, 2019). 평가제 준비를 위해서는 각고의 노력과 교사들의 희생이 요구되는데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교사들의 불만족을 합의하고 도출하는 역할을 원장이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원장의 리더십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어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초임원장들도 교직원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끊임없는 자기 성찰을 하였다. 그리고 초임원장의 이러한 고민과 자기 성찰은 원장에게 필요한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원장에게 필요한 리더십은 포용할 수 있는 리더십이지 원장 권위만 내세우며 가는 리더십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요즘 시대에서는 MZ세대들과 같이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인정해주고 포용해주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해요.

(홍원장, 2022. 01. 19. 2차 개별 인터뷰)

이번 평가제 경험에 비추어 제가 생각하는 원장의 리더십은 감정적으로 누군가를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감성적이되 감정적이면 안 된다는 거죠. 열린 마음과 수용적인 태도를 갖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원장으로서의 중심을 잡고 가는 것 그게 원장의 리더십인 것 같아요.

(임원장, 2023. 01. 19. 2차 개별 인터뷰)

또한 연구에 참여한 초임원장들은 평가제 참여를 통하여 교직원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배움을 얻었다. 이는 어린이집 원장이 섬기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어린이집 전반의 운영과 평가 준비 등에 영향을 발휘한다(이화선, 2022)는 연구 결과와 같은 맥락이다.

이처럼 어린이집 초임원장의 평가제 참여 경험은 원장으로서의 정체성 확립과 동시에 초임원장이 원장으로서 가져야 하는 리더십을 재설정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2) 그때는 알지 못했던 원장의 세계

연구 참여자 박원장, 임원장, 조원장은 교사일 때는 보육일지만 잘 쓰면 됐는데 원장이 되니까 전체를 다 살펴야 하고 원장은 어린이집 전체를 관리해야 하고 교사들의 서류도 일일이 다시 확인해야 해서 업무량이 몇 배 더 많아졌다고 말하였다.

교사일 때는 자기 일지만 잘 쓰면 되고 자기 서류만 잘하면 되는데 원장은 전체를 다 살펴줘야 하잖아요 그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박원장, 2022. 01. 27. 1차 개별 인터뷰)

원장은 정말 전체를 다 챙겨야 하는 것 같아요 모든 선생님과 모든 반을 다 챙겨야 하고 아이들 서류도 챙겨야 하다 보니까 체감으로 느끼는 업무량이 교사일 때보다 몇 배는 더 많은 것처럼 느껴졌던 것 같아요.

(임원장, 2022. 12. 16. 1차 개별 인터뷰)

교사 때는 내가 할 부분만 잘하면 됐지만 원장으로서의 전체적인 것을 다 잘해야 하잖아요 하나라도 잘못되면 다 내 책임으로 돌아오니까 부담스럽죠.

(조원장, 2022. 12. 27. 1차 개별 인터뷰)

연구에 참여한 초임원장들은 교사 시절과는 다르게 평가제의 전 과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하는 것과 과도한 업무량에 부담감을 느꼈다. 그러나 이를 원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책무라고 생각하며 평가제에 참여했다. 이는 교사들은 자신의 업무를 마치고 퇴근할 수 있었지만, 원장은 그럴 수 없었던 임원장의 인터뷰에 잘 드러나 있다.

매날 야근했어요 선생님들은 일찍 보내도 저는 9시 10시까지 계속 서류 보고 수정작업하고 그랬죠 어린이집의 일이 모두 제 일처럼 느껴져서 선생님들은 본인 업무 끝나고 집에 가도 저의 집에 갈 수가 없었어요.

(임원장, 2022. 12. 16. 1차 개별 인터뷰)

하원장은 교사들이 어려워하는 상호작용에 대한 평가와 지원은 초임원장으로서 처음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였다.

선생님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상호작용을 평가해줘야 하는 게 제일 어려웠어요. (중략) 제가 아직 낯을 평가해주고 피드백 해주 일들이 아무래도 초임원장이라서 좀 힘들죠.

(하원장, 2022. 12. 01. 1차 개별 인터뷰)

이처럼 연구에 참여한 초임원장들은 원장으로 임용된 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무적으로 참여한 평가제에서 교사 때와는 다르게 어린이집 전체상황을 파악하고 모든 일에 능동적인 태도로 참여하여야 했기 때문에 과도한 업무량과 외부로 공개되는 평가제 결과에 대한 압박감으로 인한 직무스트레스를 겪고 있었다. 이는 교사에서 원장으로 역할이 변화됨에 따라 교사 시절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업무에 대한 적응과 원장으로서 전체를 총괄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과 중압감으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일단은 교사가 도망갈까 무서웠어요. ‘평가제까지만 버텨주세요~’ 이런 마음이었어요. 도망가는 교사들이 너무 많으니까 진짜 교사 뽑기가 너무 힘들어요. 내가 지금 어린이집에 다니는 애들한테 신경을 써야 하는데 이걸 뭐 교사 하나 도망가면 하나 잡아 오기 바쁘니까 내가 이거 하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도 듣고.

(홍원장, 2023. 04. 17. 그룹 인터뷰)

연구에 참여한 초임원장들은 평가제 참여 과정 중 교사의 갑작스러운 교사 이직에 대한 걱정이 많았다고 말하였다. 평가제는 교사들이 보육 등의 일상적인 업무와 평가제 준비도 병행해야 해서 업무가 가중되기 때문에 교사들이 평가제로 인하여 과중된 업무로 갑작스러운 이직이 생길까 봐 노심초사한 것이다.

요즘에는 교사들이 조금만 힘들거나 불편한 게 있으면 퇴사하는 게 너무 쉬워요. 원장들은 교사들의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적당히 업무를 분배하고 보육에 무리가 간다거나 일상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일을 주려고 하죠. 원장인 내 일상은 무너지더라도요.

(임원장, 2022. 12. 16. 1차 개별 인터뷰)

평가제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교사들의 요구를 다 맞춰야지 평가제가 끝날 때까지 어떻게든 같이 가요. 울며 겨자 먹기로 참으며 지냈죠.

(박원장, 2023. 04. 24. 그룹 인터뷰)

박원장의 ‘울며 겨자 먹기로 참았죠’라는 말속에서 그들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짐작해 볼 수 있다. 갑작스러운 교사 공백으로 계획되어 있던 평가제가 미뤄지게 되면 어린이집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임원장의 말처럼 원장 자신의 일상이 무너짐을 감수하며 평가제를 무사히 마치기 위한 노력이 필요했다.

3) 정서적 위로가 되어주는 동료 원장들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 5명은 모두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어린이집 위탁 선발 과정을 통하여 원장으로 임용되었고 임용 후 평균 1년 안에 어린이집 평가제에 참여하였다. 그들이 말하는 위탁과 개원의 과정 그리고 평가제 준비과정은 ‘맨땅에 헤딩’이라는 말을 떠올리게 했다. 그래서인지 연구자는 연구에 참여자인 초임원장들의 인터뷰 속에서 다시 교사 시절로 돌아가고 싶을 만큼의 소진을 겪고 있다고 느껴졌다.

저는 재위탁 말고 다른 직업을 할 것 같아요 저는 원장으로서 제가 하고 싶었던 걸 이미 다 했어요 제가 쏟을 수 있는 열정 다 쏟아냈고 그냥 저는 할 만큼 다 했어요

(박원장, 2023. 04. 24. 그룹 인터뷰)

저는 교사로 다시 뽑아주면 교사로 갈 것 같아요 주임 교사일 때 교사들한테 업무 지시하고 같이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더 편했던 것 같아요

(홍원장, 2023. 04. 17. 그룹 인터뷰)

원장은 개인 사업자라고 안 되는 게 많아요 복지적 혜택이 없다는 느낌이 드니까 ‘차라리 교사를 하는게 더 낫겠다. 교사 때가 더 편했지’ 이런 생각 할 때가 있어요

(임원장, 2023. 04. 17. 그룹 인터뷰)

박원장, 홍원장, 임원장은 교사 시절 원장이 되길 꿈꾸며 지금의 원장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위탁, 개원, 평가제라는 힘든 직무를 경험하며 오히려 교사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러한 소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속 시원하게 이야기할 원장들의 모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마 저는 박원장 없었으면 원장으로 일하는 게 되게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없기가 다르거든요

(하원장, 2023. 04. 24. 그룹 인터뷰)

하원장과 제가 있는 모임은 다른 원장님들의 모임과는 조금 달라요 서로 어린이집 운영 정보를 교환하는 것 보다 서로의 마음을 교환하는 그런 모임이죠 (중략) 원장도 사람인지라 선생님들이 마음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면 누군가에게 말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임이 정말 필요해요

(박원장, 2023. 04. 24. 그룹 인터뷰)

저는 개원 동기 원장님들이랑 같이 원장협의체가 있어요 같은 상황에서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금세 친해지고 어린이집 원아 수도 비슷하니까 이야기가 잘 통해요 제가 서움에 있다가 성남에 와서 아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동기 원장님들이 많은 도움이 됐죠

(홍원장, 2023. 01. 18. 2차 개별 인터뷰)

홍원장의 인터뷰 속 ‘원장협의체’는 홍원장에게 학습을 위한 공동체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홍원장은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지역과 다른 지역에서 원장으로 임용이 되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도움받을 곳이 없어 암담한 심정이었지만, 같은 시기에 원장으로 임용된 주변 원장들과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며 원장의 직무를 익히고 심리적인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연구에 참여한 초임원장들은 업무와 관련된 어려움 보다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사 시절에는 주변 동료들과 함께 어려움을 이야기하며 지낼 수 있었지만, 원장이 교사들에게 원장으로서의 고충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초임원장들은 자신과 같은 상황을 공감할 수 있는 주변 동기 원장들과 정서적으로 교류하며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었다. 초임원장에게 이러한 과정은 자연스럽게 타 기관과의 원만한 관계 형성의 중요성을 배우게 되었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이렇듯 어린이집 초임원장의 평가제 참여 경험은 초임원장이 타 어린이집과 정기적인 모임을 계획하고 공적인 관계 형성의 중요성을 느끼고 능력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3. 다음 단계로 오르는 첫 번째 계단

1) 초보가 아닌 프로가 되기 위한 노력

연구에 참여한 초임원장들은 원장으로서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주관적 학습을 하고 있었다. 특히 조원장의 인터뷰에는 ‘공부’라는 단어가 자주 언급되었다. 평가제 준비를 시작하기 전부터 평가제 지표와 평가제에 필요한 준비사항 등을 미리 숙지하기 위해 혼자 많은 공부를 하였다고 했다. 원장이 선행학습 되어있어야 교사들에게 업무지시를 잘 할 수 있고 평가제 준비 과정에서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었다.

교사 시절 평가인증을 준비할 때 원장님이나 주임 교사가 지표를 잘 숙지해서 교사들한테 업무를 내려주면 교사들은 그대로 하면 되는데 원장도 모르고 주임 교사도 모르고 교사도 모르고 그래서 엄청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원장이 제일 먼저 지표를 정확하게 숙지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혼자 공부를 많이 했어요

(조원장, 2022. 12. 27. 1차 개별 인터뷰)

조원장에게 평가제 참여와 관련된 서류를 부탁했을 때 가장 먼저 평가제에 참여하는 동안 혼

자 공부했던 책을 보여주었다. 책에는 밑줄과 메모 그리고 교직원에게 적용할 방법 등이 적혀있었다. 책 속에서 혼자 많은 공부를 했다는 조원장의 이야기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다. 2022년 12월 제4차 증장기 보육 기본계획이 발표되면서 평가제 전환에 대한 준비가 시작되었다. 조원장은 평가제를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평가제 전환 시범 지표사업에 참여하며 3년 뒤에 있을 재평가를 미리 준비하고 있었다.

제가 시범지표 사업 신청해서 자체 점검하고 한국보육진흥원에 결과를 보냈어요. 형식이 조금 바뀌었을 뿐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가니까 이대로 유지하면 다음 평가제도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중략) 평가제가 어떻게 바뀔까? 궁금했고 시범으로 내가 해보지 않으면 잘 모르니까. 내가 해보면 앞으로 운영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해봤어요.

(조원장, 2023. 01. 19. 2차 개별 인터뷰)

조원장은 교사 시절 평가인증을 준비할 때 원장과 주임 교사가 평가인증에 대해 잘 모른 채 교사들에게 업무를 지시하여 혼란스러움을 경험하였다고 하였다. 조원장이 아직도 3년이나 남은 다음 평가제를 위하여 지표 전환 사업에 참여한 것도 이러한 교사 시절 경험이 바탕이 되어 원장으로서 교사보다 좀 더 잘 아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일지도 모른다.

저는 평가제를 앞두고는 밤 11시까지 여기 주변 원장님들하고 평가제를 같이 준비했어요 같은 시기에 개원했기 때문에 평가제 시기도 같으니까 이야기도 잘 통하고 좋았어요 지금은 평가제가 끝나서 내년도 계획을 같이 세우고 있어요. 원장님들마다 서로 가진 달란트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서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며 도움을 주고 있어요.

(홍원장, 2023. 01. 18. 2차 개별 인터뷰)

2022년 12월에 평가제를 마친 홍원장은 신학기 준비를 위해 어린이집 개원 과정부터 함께 한 주변 원장들과 함께 정보를 공유하는 방법으로 지속적인 학습을 하고 있었다.

이처럼 초임원장에게 평가제 참여 경험은 다음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속적인 학습이 필요함을 느끼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평가제 결과 확인을 통하여 원장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직무수행에 대한 자신감을 얻은 초임원장들의 지속적인 학습에 대한 욕구는 원장으로서의 전문성 향상뿐만 아니라 교사들로부터 인정받는 원장이 되고자 하는 스스로의 노력이라고 생각된다.

2)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기회

연구에 참여한 초임원장들은 평가제에 참여하는 과정은 분명 힘들었지만, 어린이집과 원장이 함께 성장하는 기회였다고 하였다. 이는 최보금(2021)의 어린이집 평가제는 시행목적의 달성과

어린이집의 질적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와 같은 맥락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저는 평가제를 마치고 어린이집 환경이 재정비되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상호작용하는 것과 보육일지 쓰는 것도 평가제 전과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평가제를 참 잘 했구나, 필요하구나 생각해요.

(하원장, 2022. 12. 01. 1차 개별 인터뷰)

평가제는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뭔가 어린이집 운영에 기준은 있어야 하잖아요. 기본적인 기준을 잡기 위해서는 평가제가 필요해요. 특히 초임원장에게는 평가제가 어린이집 운영의 기준점을 잡는데 많은 도움이 되요.

(박원장, 2022. 12. 27. 1차 개별 인터뷰)

이렇듯 초임원장들은 평가제를 통하여 어린이집의 운영 기준이 설정되고 어린이집 보육환경의 발전뿐만 아니라 원장과 교직원 그리고 어린이집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한 것에 보람을 느끼고 있었다.

평가제 전에는 평가제만 생각해도 스트레스니까 교사들의 성향이나 문제 상황들이 다 보이지는 않았는데 평가제가 딱 끝나고 나니까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원래 저 사람 성향에는 어려운 문제였구나’, ‘이 사람은 이런 걸 못 하는 사람이었구나’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교사들의 성향에 맞춰 지원해주게 되더라고요.

(박원장, 2023. 01. 19. 2차 개별 인터뷰)

또한 연구에 참여한 박원장은 평가제가 교직원의 개별적인 성향 파악에 도움이 되었다고 말한다. 이는 초임원장이 원장 임용 후 원장으로서의 직무에 적응하기에 바빠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부분까지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사들이 제 마음을 몰라주면 서운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서운한 감정인거예요. 저는 원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하는 저의 업무를 하는거라고 생각해요. 업무는 업무로 대해야 하는 거니까 제 개인적인 감정은 그냥 묻어두는 걸로 생각해요.

(임원장, 2023. 01. 18. 2차 개별 인터뷰)

저는 교사들에게 불편하면 언제든 상담하라고 항상 이야기해요. 그리고 얘기를 듣다 보면 가슴속에서 화가 막 치밀어 오르기도 하는데 화를 내지는 못하고 ‘이 사람 성향을 인정해줘야지’ 혼자 생각하면서 다독여요. 처음에는 괜히 내가 막 열 오르고 했는데 교사 앞에서 어차피 싫은 소리 못하는 성격이니까 그냥 최대한 부딪치지 않으려고 좋게 얘기하고 했더니 이제는 다 괜찮

아지더라고요.

(조원장, 2022. 12. 27. 1차 개별 인터뷰)

교사가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분위기를 만드려고 왜냐하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원장이
나 주임 교사한테 물어봐야 할 텐데 관계가 어려우면 원장한테 얘기하러 못 올 것 같아요.

(홍원장, 2023. 01. 18. 2차 개별 인터뷰)

초임원장들이 교사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초
임원장들은 교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객관적인 시
선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중심을 잡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있었다.

이렇듯 어린이집 평가제는 원장과 교직원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함께 겪으며 자연스럽게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계기가 된다. 즉, 어린이집 초임원장에게 평가제 참여는 A등급이라
는 높은 결과적 성과를 얻는 성취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교직원
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는 경험이 되었다.

I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어린이집 초임원장의 평가제 참여 경험을 심층적으로 들어보고 경험의 의미를 탐
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원장으로서 평가제를 처음 경험한 어린이집 초임원장 5
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고 연구 절차를 참고하여 수집한 자료를 전사 후 코딩하여 분석하였
다. 본 연구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이집 초임원장들은 어린이집 평가제 참여를 통해 ‘한번은 넘어야 할 산’을 경험하
였다. 어린이집 평가제는 전체 어린이집에 대하여 평가를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평가 등급에 따
라 관리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어린이집에 평가 의무가 부여되므로 모든 어린이집 원장은 평가
제에 참여해야 하는 의무를 갖는다. 이에 어린이집 초임원장은 교사 때는 경험해 보지 못한 원
장의 업무 파악이 채 끝나기도 전에 평가제를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평가제의 전 과정을 주도
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원장으로서 평가제를 처음 경험하는 초임원장들이 심리적인 부담
을 갖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이는 이승연(2019)의 초임원장이 운영자로서 평가
인증을 처음 받기 때문에 막연한 두려움과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연구 결과와 같은 맥락이다. 게
다가 평가제의 평가 결과는 결과 통보 후 통합정보공시 홈페이지를 통해 외부로 공개된다. 어린
이집의 질적 수준이 원장의 전문성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조숙자, 2017)는 맥락에서 생각
해 볼 때, 어린이집 평가제 결과는 곧 원장의 전문성에 관한 결과를 의미한다. 즉, 원장의 전문
성 수준이 평가제 결과를 통하여 외부로 공개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린이집

평가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현장 관찰자에 의한 일회적 평가의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정원주, 2007)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보완되지 못한 채 평가제의 평가 결과 등급 또한 현장평가 결과 100%를 바탕으로 결정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생각한다면 학부모가 어린이집의 평가제 정보를 알고자 통합정보공시 홈페이지에서 어린이집 명을 검색했을 때 보여지는 평가제 결과 등급은 평가제 현장 관찰 하루의 평가 결과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2023년 보육사업안내 책자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 6일 이상 연중 계속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전국의 어린이집은 이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질은 단 하루의 관찰만으로 결정되고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또한 현장평가 하루의 결과를 통하여 A등급 원장, B등급 원장으로 여겨지며 부모들은 그 결과를 어린이집의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어린이집 평가제가 전체 어린이집의 질 관리를 위하여 평가 자체에 목적을 두기 보다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어린이집의 지속적인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고자 한다는 평가제의 본질적인 의미와 모순된다. 평가제의 결과가 현장 관찰 단 하루의 평가 결과로 등급을 결정하고 그 등급을 공개하는 방법이 아닌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질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평가 방법으로 전환된다면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질이 상시 유지될 뿐만 아니라 평가제를 준비하는 초임원장의 부담감도 함께 줄일 수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 참여한 초임원장들은 원장 직무에 대해 교육적 지원을 받기보다는 원장 임용 전 교사 시절 경험적 지식을 바탕으로 어린이집 운영 방향을 설계하고 몸으로 직접 부딪쳐 가며 스스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있었다. 초임원장들의 평가제 참여 경험 또한 새로운 교육적 지원이 있었다기보다는 교사 시절 평가제 참여 경험이 경험적 지식으로 작용하여 원장 스스로 다양한 어려움을 극복하며 준비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자신의 운영 철학을 확고히 하고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관리 기술을 자연스럽게 터득하고 있었다. 경기도에서는 2019년부터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4개의 교육사업을 시작하였다. 그중 어린이집 원장을 위한 교육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신임 원장 역량 강화 교육을 하고 있지만 교육 대상과 교육 시기가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초임원장이 원장의 직무를 시작하기 전 원장의 직무에 관한 이해에 도움이 되는 교육이라 할 수 없다.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과의 인터뷰 중 초임원장들이 겪고 있는 직무수행의 어려움을 줄이는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했다. 이와 관련된 질문을 했을 때 초임원장으로서 현장에서 도움이 되는 행정업무에 관한 사전 교육의 기회가 많아지거나 경력 원장에게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었다면 조금 더 원활한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 이렇듯 어린이집 원장의 직무를 최초로 시작하기 전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법령과 원장의 직무를 이해하고 실제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계획 할 수 있는 초임원장 교육이 실시 된다면 좀 더 향상된 전문성을 갖고 어린이집 운영을 시작할 수 있게 되므로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어린이집 초임원장을 위한 교육적 지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둘째, 어린이집 초임원장들은 어린이집 평가제에 참여를 통해 ‘리더십은 단단한 나로부터’를 경험하였다. 초임이라는 시기는 열정을 다하여 일하고 있지만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확신을 갖

지 못하고 ‘내가 잘하고 있는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초임원장은 ‘내가 과연 잘하고 있는 것일까?’,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일까?’ 하는 질문을 스스로 던지며 치열하게 고민한다는 이승연(2019)의 연구와 같은 맥락이다. 교사 시절에는 선배 교사 또는 원장으로부터 업무에 대한 평가와 조언을 얻으며 자신의 전문성을 확인할 기회가 있었지만, 원장은 어디서든 평가와 조언을 받을 기회가 없다. 따라서 자신의 전문성에 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연구에 참여한 초임원장들은 어린이집 평가제를 자신의 전문성을 평가받는 기회로 여기고 그 결과를 원장의 전문성에 관한 결과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초임원장의 평가제 참여 경험은 원장으로서의 전문성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평가도구로 작용하였고, 초임원장에게 원장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에 도움이 되었다. 이는 원장이 어린이집을 대표하는 사람임을 명확하게 하고 어린이집의 성장을 위하여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는 원장의 상징적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에 참여한 초임원장들은 평가제 참여 경험 중 교직원 관리가 가장 어려웠다고 말한다. 그리고 평가제 참여 과정을 통하여 교직원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다고 하였다. 평가제 준비 기간은 업무가 과중 되고 직무스트레스가 매우 높은 특수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직원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느꼈다는 것은 어린이집 운영은 원장 혼자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원장과 교사가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닌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걸어가고 있는 업무 파트너임을 알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듯 연구에 참여한 초임원장은 평가제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교직원과 긴밀한 소통으로 화합을 이끌어가고 교직원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리더십을 발휘하였기 때문에 평가제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즉, 어린이집 초임원장은 평가제 참여 경험을 통하여 교직원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원장에게 필요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되었다. 이는 초임원장이 경력 원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때 교직원과의 관계 형성에 있어 원장으로서 자신감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중요한 경험적 지식으로 작용할 것이며 현재보다 성장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술 습득에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 참여자는 모두 국공립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어린이집 위탁 선발 과정을 거쳐 원장이 되었다. 원장 임용 후 어린이집 개원 준비로 몹시 바쁜 시간을 보냈고 어린이집이 원장의 직무에 익숙해지기도 전에 평가제를 준비해야 했다. 이러한 시간을 보내서인지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연구 참여자들이 심리적 소진을 겪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이미정(2019)은 원장의 직무스트레스는 심리적 소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어린이집 원장의 심리적 소진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가족, 친구, 상사, 동료, 학부모들의 사회적 지지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연구에 참여한 초임원장들은 서로의 상황을 공감하며 이해할 수 있는 주변의 동기 원장들과 함께 정서적 교류를 하며 심리적 소진을 감소시키고 있었다. 원장의 심리적 소진은 결국 어린이집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는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질과도 연결된다. 따라서 어린이집 원장의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어린이집 원장의 직무를 처음 맡는 초임원장의 경우 어린이집 운영의 미

숙함으로 경력 원장보다 더 많은 직무스트레스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어린이집 초임원장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확대, 직무의 간소화, 각종 규제의 완화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셋째, 어린이집 초임원장들은 평가제 참여를 통해 지속적인 반성적 사고와 성찰을 하며 ‘다음 단계로 오르는 첫 번째 계단’을 경험하였다. 어린이집 초임원장들은 평가제를 통하여 원장 역할 수행에 자신감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자신감은 앞으로의 어린이집 운영을 계획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인터뷰를 통해 연구에 참여한 초임원장들은 평가제를 마치고 난 후 보육교직원의 교사 교육을 계획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교사의 전문성 향상이 곧 보육의 질 향상이며 교사의 질 향상을 위해 지원을 하는 것이 원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초임원장이 앞으로의 미래를 계획한다는 것은 평가제 참여 경험을 통하여 원장으로서의 전문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앞으로 원장의 역할수행을 할 때 좀 더 자신감 있게 수행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어린이집 원장의 긍정적인 자아평가는 원장의 전문성 하위요인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유의미한 요인임을 확인한 연구 결과(김희숙, 2018)와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어린이집 초임원장이 자신의 직무에 자부심과 자신감을 느끼며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또한 연구에 참여한 초임원장들은 평가제를 통하여 어린이집의 물리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원장과 교직원의 전문성 또한 함께 성장하였다고 말한다. 이는 연구 참여자 하원장과 임원장의 ‘평가제는 원장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말처럼 어린이집의 평가제 결과는 모든 구성원이 함께 만들어낸 성과이다. 평가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교직원의 갑작스러운 이직, 과도한 업무로 인한 불평 등의 부정적인 상황들이 발생하기 일췌이다. 그러나 평가제를 무사히 마쳤다는 것은 교직원이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도록 초임원장이 적절하게 조언하고 지도와 감독을 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교직원은 초임원장을 한 기관의 리더로 인정하고 원장의 말을 수용하고 자신의 역할을 해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평가제라는 어려운 상황을 원장과 교직원이 함께 겪으며 자연스럽게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라 여겨진다. 이것은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그 어린이집의 조직문화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어린이집 평가제 참여는 어린이집의 주기적인 평가의 의미를 넘어 한 어린이집의 긍정적인 조직문화 형성에 중요하게 작용하였고 이는 어린이집이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의미를 갖는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후속 연구를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어린이집 초임원장이 원장으로서 처음 평가제에 참여한 경험을 통해 경력 원장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을 다루고 있다. 이와 같은 원장의 발달에 관한 계속적인 연구로서 초임원장 시절뿐 아니라 원장 경력의 변화에 따라 원장으로서의 역량 강화기, 역량 성숙기를 이르게 하는 원장의 발달단계를 질적으로 고찰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는 모두 평가제에서 A등급을 받은 초임원장이다. 그러나 현장에는 평가제 결과가 좋지 않은 초임원장도 존재하며 그들의 평가제 참여 경험은 본 연구의 결과

와 다를 수 있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평가제 결과를 받은 초임원장들의 평가제 참여 경험과 의미를 좀 더 자세히 드러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시도일 것으로 여겨진다.

참고문헌

- 구수현(2011). 보육시설장의 신규 직무교육에 대한 인식 및 요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수연, 나종혜(2008). 보육시설장의 스트레스와 어려움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7(1), 45-56.
- 김영천(2017). **질적연구방법론 I : Bricoleur**. 경기: 아카데미프레스
- 김용희, 황혜경, 정미미(2012). 구수현(2011). 신규와 일반직무과정 보수교육에 대한 어린이집 원장의 인식 및 욕구 차이에 관한 연구 = 강원도 영서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영유아보육학회지**, 0(73), 1-25.
- 김은아(2022). 어린이집 원장의 직무 경험 의미 탐색.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은희, 송승민(2010). 가정어린이집 원장의 직무스트레스와 소진이 스트레스 대처방안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14(3), 7-26.
- 김정화(2014).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의 생애사를 통해 본 유아교육자의 삶. 배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태선(2009). 어린이집 원장의 변혁적 지도성과 교사의 직무만족이 조직헌신성에 미치는 영향. 서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희숙(2018). 어린이집 원장의 리더십 유형과 자아존중감이 원장의 전문성에 미치는 영향. 가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변선영, 황해익(2019). 어린이집 초임원장의 운영관리 지원에 대한 인식 및 요구도 조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23), 77-103.
- 변선영, 황해익(2020). 어린이집 초임원장의 운영관리 지원 컨설팅 모형 개발을 위한 델파이 조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10), 1091-1112.
- 변선영, 황해익(2021). 어린이집 초임원장의 운영관리 지원을 위한 GROW컨설팅 모형 개발 및 적용. **열린유아교육연구**, 26(1), 133-165.
- 서미선(2021). 어린이집 평가제의 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한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의 인식.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희나(2020).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어린이집원장의 어려움과 코로나19에 대한 대응방안 : 가정어린이집을 중심으로. 배재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태희, 이대균(2017). 초임 유아교육기관장으로 살아가기. **열린유아교육연구**, 22(2), 443-470.
- 유선영(2011). 원장의 감성리더십이 교사의 책무성과 교사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

- 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지연, 황혜정(2014). 유아교사의 자아탄력성과 전문성인식이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0(1), 131-146.
- 육아정책연구소(2022). 2021 영유아 주요 통계.
https://kicce.re.kr/main/board/index.do?menu_idx=35&manage_idx=43에서 2023년 04월 01일 인출
- 이경희(2008). 유치원 교원의 유치원 평가에 대한 인식.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미정(2019). 어린이집 원장의 직무스트레스가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와 집단자존감의 매개효과 검증. 우석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미화, 장명립, 신나리, 김문정(2007). 육아지원기관장의 전문성 수준 분석. **육아정책연구**, 1(1), 125-142.
- 이승연(2019). 초임 어린이집 원장의 어려움과 극복. 배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유미, 김선정 (2021). 어린이집 원장의 리더십, 정서지능, 전문성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18), 821-835.
- 이은주(2017). 초임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의 어려움 경험에 대한 합의적 질적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주, 박수경(2018). 초임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의 어려움 경험에 대한 합의적 질적 연구. **유아교육연구**, 23(1), 451-477.
- 이화선(2022). 원장의 서번트리더십과 어린이집 평가제, 보육교사의 조직몰입, 업무수행 능력 간의 관계. 협성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임혜진(2015). 어린이집 원장의 배경 변인에 따른 전문성 비교.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원주(2007).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영유아보육학**, 0(51), 45-64.
- 정주혜(2017). 어린이집 원장 사전 직무교육에 대한 예비원장의 인식과 요구. 광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진이(2021). 어린이집 평가제 평가지표에 대한 원장과 보육교사의 중요도-실행도(IPA) 인식 차이. 동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숙자(2017).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과 보육서비스 질 간의 관계. 동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은정, 박은영, 김희정(2008). 보육시설장의 전문성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학논집**, 12(3), 311-327.
- 조혜진, 김수연(2013). 어린이집 신규 원장의 직무역량 교육 요구에 따른 직무교육과정 분석. **열린유아교육연구**, 18(2), 199-220.
- 주희경(2017). 원장의 전문성과 진정성 리더십이 열린어린이집 운영에 미치는 영향. 호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지성애(2001). 영유아 보육시설장과 교사의 전문적 자질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0(27), 138-168.
- 지성애(2010). 보육시설장의 자격 강화와 전문성 확장을 위한 대안 모색. **한국영유아보육학**, 0(61), 63-88.
- 진은영, 이경화(2020). 보육교사들이 이야기하는 어린이집 평가의 어려움: 질적 메타분석. **교육혁신연구**, 30(1), 261-287.
- 차미영, 손원경(2010). 위탁운영 직장보육시설 시설장이 개원 및 개원초기 운영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한국보육지원학회지**, 6(2), 17-37.
- 최나래(2021). 보육교사의 어린이집 평가제 참여 경험 탐색.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보금(2021). 어린이집 평가제에 대한 보육교직원의 인식 연구.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국보육진흥원(2022). **2022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 서울: 한국보육진흥원
- 황혜정(2018). 어린이집 원장의 배경변인과 변혁적 리더십이 보육 직무 중요도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8), 345-365.
- D. Jean Clandinnin · F. Michael Connelly(2000). **내러티브 탐구, 교육에서의 질적연구의 경험과 사례**. 경기: 교육과학사.

ABSTRACT

First time daycare center directors' experiences and implications of participating in the appraisal system

Park, Mi-won, Lee, You-m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in depth the experiences and implications of participating in the appraisal system of daycare center directors. To this end, five first-time directors of daycare centres were selected as research participants and the study was conducted using a narrative inquiry process. Data were collected by conducting at least two individual and group in-depth interviews with each participant from October 2022 to April 2023, and collecting documents on the participants' schedules, plans, and preparations for participating in the evaluation system. The results of the study revealed that the meaning of the experience of participating in the evaluation system for the first director of a daycare center was 'a mountain to be overcome once', 'leadership comes from a solid self', and 'the first step to the next level'. From these findings, it can be concluded that through participating in the appraisal system, the first director of a daycare center experienced both professional improvement as a director and improvement in the quality of daycare services. By revealing the difficulties and positive situations of participating in the evaluation system,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 a basis for providing institutional support for improving the professionalism of daycare center directors.

Keywords: daycare center, first-time director, evaluation system, narrative inquiry research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이 자녀권리존중에 미치는 영향 : 양육참여의 매개효과*

변 성 은**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이 자녀권리존중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 두 변인 간 인과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양육참여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만3~5세 유아 자녀를 둔 아버지를 291명을 대상으로 전자설문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5.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 분석, Pearson의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 양육참여수준, 아버지의 자녀권리존중 수준 모두 대체로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둘째,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과 양육참여, 자녀권리존중 수준 간에는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은 아버지의 자녀권리존중 실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아버지 양육참여는 이들의 인과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자녀권리존중의 중요성을 재고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서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과 양육참여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지닌다. 앞으로 본 연구결과가 아버지의 자녀권리존중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지원하는 아버지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

주제어 :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 자녀권리존중, 양육참여

※ 투고일 : 2023년 10월 31일 / 수정본 접수일 : 2023년 12월 14일 / 게재확정일 : 2023년 12월 18일

* 본 논문은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

** 월드비전어린이집 원감(kebi33@hanmail.net)

I. 서론

자녀가 태어나서 처음 만나게 되는 가정과 부모는 최초의 사회이므로 자녀권리에 관한 논의는 가정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즉 가정은 아동권리존중실천의 가장 근본이 되어야 하며, 가정 안에서 자녀의 권리실현이 이루어지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인은 부모라고 할 수 있다(안사라, 2012).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도 부모가 아동의 성장에 있어 우선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며, 아동의 조언자이면서 역할모델이라고 강조하는 등 부모의 역할에 상당한 무게를 두고 있다. 최근 정부는 아동정책 분야 전반에 걸쳐 자녀권리존중을 포함하고 있는 아동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15~2019)에 이어 2020년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안(2020~2024)을 수립하여 유아기가 속해있는 아동의 행복과 아동 최우선의 원칙 실현을 위해 아동권리 실현기반 조성과 가정의 역량 강화 등의 목표를 발표하였다(보건복지부, 2020).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국가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국민 전체가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심을 높이고자, 매년 11월 19일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로 정하였으며(「아동복지법」 제23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0년 아동학대 주요통계(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례는 30,905건이며,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는 25,380건(82.1%)가 부모에 의한 학대가 발생하였고, 그중, 43.6%가 친부로부터 학대를 받았다는 통계를 통해, 자녀의 발달과 관련한 권리와 이러한 권리를 지켜주어야 할 아버지로부터, 자녀의 권리가 침해되는 결정적 요인이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현재 유아가 포함된 아동권리 및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개념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아동이 출생에서 삶을 영위하는 순간 중, 가장 중요한 시기인 유아기에 가장 먼저 만나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부모, 특히 아버지에게는 여전히 자녀권리 존중을 위한 실천은 미비한 상황이다.

따라서 유아기 자녀의 자녀권리존중에 영향을 미치는 아버지 변인을 보다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이루어진 부모의 자녀권리존중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부모의 자녀권리존중이 영유아의 발달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홍선미, 2017; 이서연, 2018) 입증되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 연구가 주로 어머니를 대상으로 살펴본 연구(안사라, 2012; 서혜정, 2015; 우다정, 2016; 이수정, 2017; 홍선미, 2017; 유빛나, 2018)이며,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자녀권리존중 연구는 아버지의 권리인식이 양육참여 미치는 영향을 본 허은(2014) 연구와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자녀권리존중실행을 직접적으로 살펴본 연구로 김영란(2019)의 연구만 존재하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자녀양육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공동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가 증가하였고 생계부양자의 역할을 해왔던 아버지와 양육자의 역할을 맡았던 어머니의 고정적인 틀은 무너지며(배효정, 김도연, 2015),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 아버지의 양육에 관한 관심과

필요성 인식이 증가하였다.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자녀의 욕구충족과 긍정적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아버지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행동과 자녀에게 자원과 기회를 제공하며 자녀와의 윤리적 발달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아버지의 책임감 있는 양육행동을 의미한다(민지혜, 2013). 아버지의 자녀 양육참여와 자녀와의 관계를 알아본 선행연구를 보면, 아버지의 양육행동은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다르며(이미현, 2014), 어머니의 양육참여와는 질적으로 다른 독자적인 역할을 한다(한명숙, 2007). 또한 자녀양육은 사회적 또는 문화적으로 크게 영향받는 행동으로 시대적 변화 또는, 양육대상에 따라 아버지 양육참여의 형태는 변화 되어진다.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자녀의 인지발달, 사회성 발달, 성역할 학습, 성취동기 및 직업선택, 정서적 발달 등 모든 영역에서 영향을 주며, 일부 측면에서는 어머니보다 더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되었다(박미라, 2010; 라혜미, 2012). 아버지의 양육참여 하위요인인 놀이·문화지원, 사회·정서지원, 공동육아, 교육지원, 자기성장이 높을수록 자녀권리존중 실행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영란, 2019).

원가족에서의 경험들은 자신이 이룬 가족관계와 대인관계에 영향을 주며, 현재 자신이 관계하는 양육태도 등에서 드러나게 되며, 이는 아동기에 원가족 안에서의 경험으로부터 학습한 것이다(구광현, 2001). 현재, 부모가 된 아버지가 자라온 환경을 의미하는 아버지 원가족 경험은 아버지 자신이 성장과정 속에서 경험한 개인의 발달사(development history)로 의미하며, 다시 말해서 아버지 자신이 과거 아동기에 대한 개인의 기억을 회상해 볼 때, 자신이 경험한 다양한 경험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주로 자신의 부모로부터 받은 양육 경험에 초점을 둔다고 설명한다(김정주, 2009). 따라서 원가족의 분위기가 건강한 가족은 가족 구성원들이 문제나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 원가족 경험이 자신의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Bowlby(1973)의 애착 이론의 내적 실행모델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다. 내적 실행모델(Internal Working Model)이란 한 사람이 자기 자신과 세상에 대해 갖는 의도적으로 인식하거나 무의식적으로 본을 받고자 모델링하는 과정을 통해 개개인이 사건을 인지하고 미래를 예상하며 스스로 앞으로의 할 일의 절차, 방법, 규모 등을 헤아려 정하고, 구성해 나가는데 도움을 준다고 설명했다. 그러므로 아버지들은 영아기부터 아동기까지 형성된 내적실행모델을 성장과정을 모두 마친 이후 어른이 되어서도 그대로 실현하고 자신이 아버지가 되었을 때 자신의 아이에게도 나타내는 애착관계와 양육행동에 그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이다(김태순, 2012).

최근 자녀양육에 영향을 미치는 아버지의 심리적 변인들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김정주(2009)는 부모의 자녀양육 행동에 미치는 변인으로 부모의 원가족 경험을 주목한다.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 시기를 뜻하는 아동기 경험은 아버지가 어린 시절 실제로 겪었던 경험들을 내포하는 개념으로서 주로 자신이 부모에게서 보살피서 자라왔던 경험에 초점을 둔다. 구광현(2002)은 원가족에서의 경험은 자신이 이룬 가족관계와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며, 이것은 현재 자신이 관계하는 양육태도 등에서 드러난다고 하였다. 따라서 아버지들이 어린 시절 본인의 주 양육자인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얻은 경험은 자신의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

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어머니와의 아동기 애착경험이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밝히고 있으며(채진영, 2011). 아버지가 원가족에서 자신의 아버지와 형성한 애착의 질이 본인의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애착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한다(황현주, 2012). 또한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이 긍정적인 사회화 과정이었을 경우, 아버지는 자신의 아버지를 동일시하여 자녀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김정주, 2009)고 말한다. 이에, 본 연구는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자녀권리존중의 중요성을 재고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서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과 양육참여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 아버지 양육참여, 자녀권리존중 수준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 아버지 양육참여, 자녀권리존중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이 자녀권리존중에 미치는 영향에서 양육참여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대상은 전자 설문조사의 장점을 반영하여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거주 지역이나 자녀가 재원하는 특정 교육기관에 한정시키지 않고 본 연구에 대한 관심과 설문 참여에 자발적 동의를 보여주신 아버지를 중심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비대면 방식으로 총 314명에게 응답을 받았고, 부실응답자 23명을 제외하고 291명을 본 연구의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대상 아버지와 자녀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1>에 제시된 것과 같다.

<표 1> 연구대상 아버지와 유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291)

변인	항목	N	%	변인	항목	N	%
연령	35세 미만	43	14.8	근무 환경) 시간	8시간 미만	13	4.5
	35세-40세 미만	125	43.0		8-9시간	134	46.0
	40세-45세 미만	101	34.7		9-10시간	63	21.6
	45세 이상	22	7.6		10-11시간	63	21.6
				11시간 이상	18	6.2	
최종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	5.5	거주지	서울	57	19.6
	2,3년제 대학	32	11.0		경기도	187	64.2
	4년제 대학	212	72.9		기타	47	16.2
	대학원	31	10.7				
맞벌이 여부	네	211	72.5	양육 지원자	있다	218	74.9
	아니요	80	27.5		없다	73	25.1
소득	300만원 미만	18	6.2	자유로운 연차 사용	그렇다 아니다	201	69.1
	300만원-400만원	32	11.0				
	400만원-500만원	55	18.9				
	500만원-600만원	34	11.7				
	600만원 이상	152	52.2				
하루 평균) 양육 참여 시간	1시간 미만	53	18.2	자녀 성별	남	154	52.9
	1-2시간 미만	92	31.6				
	2-3시간 미만	103	35.4				
	3시간 이상	43	14.8				
자녀 연령	만3세	67	23.0	자녀수	1명	133	45.7
	만4세	97	33.4		2명	134	46.0
	만5세	127	43.6		3명 이상	24	8.2

2. 연구도구

1)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

아버지의 원가족에서의 양육경험을 알아보기 위해 Epstein(1983)의 부모-또래-척도(Mather-Father-PeerScale: MEPT)를 수정한 전현진, 박성연(1999)의 도구 중, 자신의 부모로부터 받은 양육경험만 측정하고자 독립성 조장 대 과잉보호와 수용 대 거부 문항만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식 4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그 점수가 높을수록 아버지 자신의 부모에 의해 독립성 조장과 수용적인 양육경험을 받은 것으로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아버지의 아동기 경험 내용과 문항수, 신뢰도는 수준은 Cronbach's α .80 이다. 변인에 따른 문항과 신뢰도는 <표 2>와 같다.

40 아동중심실천연구 제18권 제2호

<표 2>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 문항 및 신뢰도

하위요인	내용	문항수	문항번호	Cronbach' a
독립성 조장	스스로 의사결정하도록 기회제공 독립심 갖도록 격려	11	1,2,4*,5, 6,7*,11, 12*,16*	.61
과잉보호	자녀를 지나치게 보호하는 양육태도			
수용	자녀의 감정, 생각 등을 받아드림	9	8,9,10*,13*, 14*,15*,17, 19, 21*	.80
거부	요구나 제의 따위를 받아들이지 않고 물리침			
전체		20		.80

(* 는 역채점 문항)

2) 아버지의 양육참여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측정하기 위해 이미현(2014)이 개발한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 양육참여’척도를 사용하였다. 연구 도구의 문항 구성은 아버지의 양육참여의 요인은 놀이·문화지원 4문항, 사회·정서지원 4문항, 교육지원 3문항, 공동양육 3문항, 자기성장 5문항으로 되어 있으며 총 5가지 하위요인으로 구분하였고 전체적으로 19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원래는 5점 척도였으나, 중심화 경향을 줄이기 위해, 척도는 Likert식 4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높은 것으로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를 반영하는 내적 합치도 계수 α 는 <표 3>과 같이 나타났으며 문항에 대한 Cronbach's α 는 .88이었다. 아버지의 양육참여 하위요인의 내용과 문항수, 신뢰도는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아버지의 양육참여 문항 및 신뢰도

요인	내용	문항수	문항번호	Cronbach'a
놀이· 문화지원	아버지가 자녀와 함께 여가활동하기, 놀기, 함께 활동하기를 포함	4	1,2,3,4	.61
사회· 정서지원	자녀가 긍정적인 가족관계과 또래관계를 이 루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소속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 처할 수 있는 힘을 지원	4	5,6,7,8	.66
교육지원	자녀의 교육과 관련된 영역에 관심을 기울이 고 도움을 주는 것이며 자녀가 호기심을 갖 고 궁금해하는 것을 아버지가 관심을 가지고 직접적인 교육을 하거나 정보를 제공	3	9,10,11	.61
공동양육	부부가 자녀 양육에 대하여 공동으로 책임감 을 가지며 자녀를 함께 양육	3	12,13,14	.60
자기성장	아버지로서 자녀 양육을 보다 잘 하기 위해 다양한 부모교육에 참여하거나 그와 관련된 도서보기, 조언을 구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아버지 자신이 성장하고 발달하고자 하는 전 과정	5	15,16,17, 18,19	.77
		19	1~19	.88

3) 아버지의 자녀권리존중

본 연구는 아버지의 자녀권리존중 실행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장지현, 이완정(2011)이 개발한 ‘유아 어머니의 아동권리 실행척도’를 시대의 반영과 또한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점을 고려하여 수정, 보완한 김영란(2019)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도구는 총 25문항 중, ‘안전·건강’ 문항은 예비조사 시, 아버지가 양육을 진행할 때, 자주 경험하는 내용이 아닌 것으로 평가되어 ‘안전·건강’에 해당하는 3문항을 삭제하여 총 22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Likert식 4점 척도로 하위 요소별 점수가 높을수록 각 영역에서의 자녀권리존중 실천 정도가 높다고 평정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를 반영하는 내적 합치도 계수 α 는 <표 4>와 같이 나타났다으며 문항에 대한 Cronbach's α 신뢰도는 .91 로 높은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아버지의 자녀권리존중 하위요인의 내용과 문항수, 신뢰도는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아버지의 자녀권리존중 실행 문항 및 신뢰도

하위요인	내용	문항수	문항번호	Cronbach' α
배려	자녀의 이야기에 귀기울려 들어주기	6	1,2,3,	.71
	질문에 성심껏 반응해주기		4,5,6	
참여	여행, 외식을 할 때 의견수렴하기	6	7,8,9,	.72
	규칙을 정하는 등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기회제공		10,11, 12	
의사존중	특기활동, 학습지, 책읽기 등 자녀의 의사반영	5	13,14, 15,16,17	.67
보호·도움	등하원시 반갑게 인사하기 잠자기 전에 눈 맞추고 안아주기	5	18,19, 20,21,22	.68
전체		22	1~22	.91

3. 연구절차

본 연구의 예비조사는 서울과 경기도 거주하는 만3~5세 자녀를 양육하는 아버지 15명을 대상으로 2022년 1월 14일부터 1월 18일까지 5일 동안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온라인 설문을 시행하였다. 이를 토대로 본 조사는 만3~5세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들을 대상으로 2022년 1월 21일부터 2022년 1월 28일까지 8일 동안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대상 선정을 위해 2020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 아버지 양육참여, 아버지 자녀권리존중 설문 문항으로 전자설문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총 314명에게 응답을 받았고, 부실응답자 23명을 제외하고 291명을 본 연구의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 수집된 자료는 SPSS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인 아버지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백분율 등 빈도분석을 진행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 사용된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a* 계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 양육참여, 자녀권리존중 수준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각 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등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 양육참여, 자녀권리존중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제외변수로 처리한 후, *Pearson*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이 자녀권리존중에 미치는 영향에서 양육참여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Baron & Kenny의 3단계 회귀분석을 수행하고 sobel을 통해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 양육참여, 자녀권리존중의 일반적 경향

1)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 일반적 경향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았다. 모든 항목에서 정규분포를 나타냈고, 왜도 0.078로 나타났고, 첨도 -0.730로 나타났고, 이때, 왜도의 절대값이 3이하, 첨도 절대값이 10이하로 나타났기에 정규분포라고 할 수 있다(Kline, 2011).

<표 5>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원가족 평균과 표준편차

(N=291)

하위요인	최소값	최대값	M	SD
독립성 조장 대 과잉보호	1.91	4.00	2.84	.41
수용 대 거부	1.11	4.00	2.77	.59
원가족 경험(전체)	1.86	3.86	2.79	.39

<표 5>에 의하면,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은 총 20문항으로 점수범위는 1.11~4.00으로 분포되었으며, 평균값은 $M=2.79(SD=.39)$ 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원가족 하위

요인인 ‘독립성 조장 대 과잉보호’는 1.91-4.00으로 분포되어 있었고 $M=2.84(SD=.41)$ 이었으며, ‘수용 대 거부’는 1.11-4.00으로 분포되어 있었고, $M= 2.77(SD=.59)$ 으로 나타났다. 결과를 통해,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들이 원가족 경험을 자신에 대해 독립성을 인정해 주고, ‘수용’경험은 ‘독립’에 비해 적게 나타났다.

2)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참여 일반적 경향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참여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았다. 모든 항목에서 정규분포를 살펴보기 위해 왜도는 0.033로 나타났고, 첨도 -0.492로 나타났다. 이때, 왜도의 절대값이 3이하, 첨도 절대값이 10이하로 나타났기에 정규분포라고 할 수 있다(Kline, 2011).

<표 6>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참여 평균과 표준편차

(N=291)

하위요인	최소값	최대값	<i>M</i>	<i>SD</i>
놀이·문화지원	1.75	4.00	3.14	.54
사회·정서지원	1.25	4.00	3.19	.57
교육지원	1.33	4.00	3.10	.61
공동양육	1.33	4.00	3.14	.58
자기성장	1.00	4.00	2.78	.67
전체	1.47	4.00	3.05	.48

<표 6>와 같이,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참여 전체’ 평균값은 $M= 3.05(SD=.48)$ 로 나타났고, 양육참여 하위요인 ‘사회·정서지원’은 $M=3.19(SD=.57)$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놀이·문화지원’와 ‘공동양육’가 $M=3.14(SD=.54)$ 으로 동일 분포를 보였으며, ‘교육지원’은 $M=3.10(SD=.61)$, ‘자기성장’은 $M=2.78(SD=.67)$ 순으로 나타났다.

3)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자녀권리존중 일반적 경향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자녀권리존중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살펴본 결과, 모든 항목에서 정규분포를 살펴보기 위해 왜도는 -0.129, 첨도 -0.629로 나타났다.

이때, 왜도의 절대값이 3이하, 첨도 절대값이 10이하로 나타났기에 정규분포라고 할 수 있다(Kline, 2011).

44 아동중심실천연구 제18권 제2호

<표 7>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자녀권리준중 평균과 표준편차

(N=291)

하위요인	최소값	최대값	M	SD
배려	1.67	4.00	3.08	.51
참여	1.67	4.00	3.18	.51
의사존중	1.60	4.00	3.13	.55
보호·도움	1.40	4.00	3.18	.54
전체	1.64	4.00	3.13	.46

<표 7>에 의하면,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자녀권리준중’은 $M=3.13(SD=.46)$ 로 나타나 평균보다 높은 분포를 보였다. 아버지의 자녀권리준중 실행 하위요인 중 높은 순으로 ‘참여’는 $M=3.18(SD=.51)$ 이었고, ‘의사존중’ $M=3.13(SD=.55)$ 로 나타났고, ‘배려’는 $M=3.08(SD=.51)$ 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들은 자녀가 ‘유아기관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물어보고 이야기 나누기,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눈을 맞추고 반갑게 안아주기, 핸드폰, 아이패드, 컴퓨터 게임을 할 때 시간을 정하고 관심 갖기’와 같은 ‘보호·도움’에 대한 자녀권리준중을 가장 많이 실천하고 있으며, ‘자녀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기, 충분히 말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기, 질문에 성심껏 응답해 주고 세심하게 반응하기’와 같은 배려에 대한 자녀권리준중은 그 중 가장 낮게 실천하고 있음을 해석할 수 있다.

2.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 양육참여, 자녀권리준중의 상관관계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 양육참여, 자녀권리준중간의 상관관계 분석은 Pearson의 상관계수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 양육참여, 자녀권리준중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 자녀권리준중, 양육참여 간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8>과 같이,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과 아버지의 양육참여 $r=.45, p<.01$ 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각 하위요인을 살펴보면,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과 독립성 조장 대 과잉보호는 $r=.84, p<.01$, 원가족 경험과 수용 대 거부는 $r=.87, p<.01$ 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 중에서 독립성 조장 대 과잉보호와 양육참여는 $r=.45, p<.01$ 이며, 수용 대 거부와 양육참여는 $r=.34, p<.01$ 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둘째,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과 아버지 자녀권리준중은 $r=.49, p<.01$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각 하위요인을 살펴보면,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 중, 독립성 조장 대 과잉보호와 아버지의 자녀권리준중 $r=.54, p<.01$, 원가족 경험 중, 수용 대 거부와 아버지의 자녀권리준중 $r=.33, p<.01$ 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셋째,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자녀권리준중에 미치는 하위요인을 살펴보면, 유아기 자녀를

<표 8> 유아 자녀를 둔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 아버지의 양육참여, 아버지의 자녀권리존중 간의 관계

(N=291)

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원가족	1													
2. 독립성 대 과잉보호	.84***	1												
3. 수용 대 거부	.87***	.48***	1											
4. 양육참여	.45***	.45***	.34***	1										
5. 놀이·문화지원	.38***	.42***	.26***	.80***	1									
6. 사회·정서지원	.51***	.51***	.38***	.82***	.57***	1								
7. 교육지원	.39***	.44***	.25***	.81***	.59***	.64***	1							
8. 공동양육	.47***	.47***	.36***	.76***	.59***	.68***	.52***	1						
9. 자기성장	.16**	.11*	.18*	.79***	.48***	.44***	.54***	.41***	1					
10. 권리	.49***	.54***	.33***	.84***	.70***	.78***	.76***	.70***	.51***	1				
11. 배려	.48***	.52***	.32**	.78***	.63***	.72***	.71***	.66***	.49***	.91***	1			
12. 참여	.44***	.49***	.26***	.74***	.61***	.71***	.69***	.60***	.43***	.91***	.79***	1		
13. 의사존중	.31***	.40***	.14*	.67***	.58***	.64***	.59***	.58***	.37***	.85***	.69***	.72***	1	
14. 보호·도움	.48***	.48***	.36***	.75***	.67***	.68***	.67***	.63***	.44***	.88***	.75***	.74***	.66***	1

* $p < .05$, ** $p < .01$, *** $p < .001$

둔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자녀권리존중에 미치는 하위요인을 살펴보면,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참여에서 아버지 자녀권리존중실행 중, 배려 $r=.78, p<.01$, 참여 $r=.74, p<.01$, 의사 존중 $r=.67, p<.01$, 보호·도움은 $r=.75, p<.01$ 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유아 자녀를 둔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 자녀권리존중, 양육참여는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즉, 유아 자녀를 둔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이 높을수록 자녀권리존중이 높고, 양육참여가 높은 것으로 알 수 있다. 또한, 양육참여가 높을 때, 자녀권리존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3.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이 자녀권리존중에 미치는 영향에서 아버지 양육참여의 매개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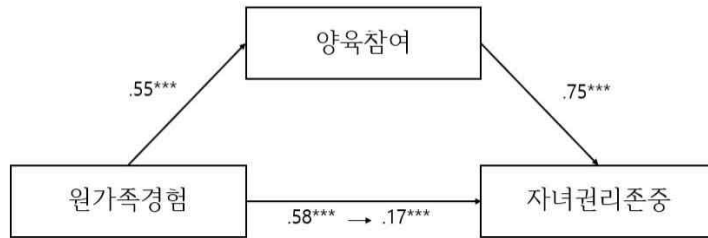
독립변수인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과 종속변수인 자녀권리존중의 관계에서 양육참여의 매개 역할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표 9>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독립변수인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은 매개변수인 양육참여에 유의한 영향($\beta=.45, p<.01$)을 미쳐, Baron & Kenny(1986)의 매개효과 1단계 조건을 만족하였다. 또한,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은 종속변수인 자녀권리존중에 유의한 영향($\beta=.49, p<.01$)을 미쳤다. 따라서 Baron & Kenny(1986)의 매개효과 2단계 조건 또한 만족하였다. 그리고 Baron & Kenny(1986)의 매개효과 3단계를 만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과 양육참여를 동시에 투입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인 자녀권리존중에 유의한 영향($\beta=.14, p<.01$)을 미쳤다. 따라서 유아 자녀를 둔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이 자녀권리존중에 미치는 영향에서 아버지 양육참여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은 $\beta=0.49$ 로 나타난 데 반해, 매개변수가 투입함으로써 $\beta = -0.14$ 로 감소함에 따라 부분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임을 의미한다.

<표 9>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이 자녀권리존중에 미치는 영향에서 아버지 양육참여의 매개효과

단계	독립변수	종속변수	<i>B</i>	<i>S.E.</i>	β	<i>R</i> ²	<i>F</i>
1	상수	양육참여	1.52	.18	.45***	.20	72.79**
	원가족 경험		.55	.06			
2	상수	자녀권리 존중	1.52	.17	.49***	.24	92.06**
	원가족 경험		.58	.06			
3	상수	자녀권리 존중	0.39	.11	.14***	.72	377.01**
	원가족 경험 양육참여		.17 .75	.04 .03			

** $p<.01$, *** $p<.001$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이 자녀권리존중에 미치는 영향에서 양육참여의 매개효과 모형을 그림으로 제시하면 다음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이 자녀권리존중에 미치는 영향에서 양육참여의 매개효과

<표 10>과 같이 Baron & Kenny(1986)의 매개효과 확인 3단계를 적용하여 아버지 양육참여가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과 자녀권리존중의 관계를 매개한다는 결과를 확인하였지만, 아버지의 양육참여의 매개효과를 추가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표 10> 아버지 양육참여의 매개효과 확인을 위한 Sobel Test 결과

경로	B	S.E.	Z
원가족 경험 -> 양육참여	.547	.064	7.99**
양육참여 -> 자녀권리존중	.745	.033	

* $p < .05$, ** $p < .01$, *** $p < .001$

Sobel test(Sobel, 1982)는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에서의 표준화 계수와 표준오차,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에서의 표준화 계수와 표준오차를 활용하여 계산되는 것으로서 *Sobel test* 값 즉, Z값이 1.96이상인 경우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일현, 2016),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과 자녀권리존중에 미치는 매개변수인 양육참여는 $Z=7.99(p < .001)$ 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 양육참여, 자녀권리존중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이 자녀권리존중에 미치는 영향에서 양육참여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설정한 연구 문제를 토대로 논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 양육참여, 자녀권리존중의 일반적 경향

1)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 일반적 경향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 양육참여, 자녀권리존중의 일반적인 경향을 살펴본 결과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은 평균 $M=2.79$ 으로 조금 높은 수준이었다. 하위요인으로 ‘독립성 조장 대 과잉보호’는 평균 $M=2.84$ 이고, ‘수용 대 거부’는 평균 $M=2.77$ 로 두 요인 모두 유사한 수준으로 중간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아버지들이 어린 시절 원가족에서의 양육 경험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원가족 경험 중 하위요인인 ‘독립성 조장’ 경험이 ‘수용’ 경험보다 조금 더 높게 인식한 연구결과(전주혜, 박정윤, 2010; 박희선, 2016)과 유사하다. 또한 어머니를 대상으로 어머니들이 어린 시절에 대한 기억을 조사한 연구(정미라, 강수경, 최은지, 2013; 장영심, 2014; 김지원 2019)에서도 원가족의 양육경험을 전반적으로 ‘대체로 그렇다’에 가깝게 인식하고 있으나 하위요인에서의 ‘수용’ 경험이 ‘독립성 조장 대 과잉보호’ 경험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온 결과와는 다소 상이하다. 이는 아동기의 성별이 부모의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유교 문화로써, 시대가 많이 변화했지만 부모는 여전히 남아와 여아를 다르게 생각하는 경향을 보여, 성별에 따라 부모의 성역할태도가 달라진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즉, 유아의 성별에 따라 부모의 성역할 인식과 태도가 달라진다는 연구결과(이운정, 성소영, 2013)에 비추어 성인이 된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동기시절 부모로부터 받았던 경험의 차이로 원가족 양육경험의 경향이 달라졌다고 조심스럽게 유추할 수 있다. 부모역할 만족도 하위 변인인 부모자녀관계, 일반적 만족감, 자녀지지가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이운나, 2013; 원수연, 2014)의 연구결과와 부모역할에 만족할수록 자녀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는 연구(백경숙·윤지영, 2004) 결과와 일치한다. 즉 아버지가 부모역할 중 특히 자녀관계에 만족감이 높을 경우 더 적극적으로 자녀양육에 참여할 뿐 아니라, 다양한 자녀 양육 영역에서 긍정적으로 참여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아버지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을 경험하고, 자녀를 통해 기쁨 및 행복감 같은 바람직한 감정을 많이 경험할수록, 온정적이고 수용적인 양육행동을 더 많이 나타냈다는 원수연(2014)의 연구결과와 아버지가 자신의 역할에 만족하고 자녀와의 의사소통이 만족스러울 때 자녀에게 애정적 양육행동을 한다고 보고한(김정옥·정영숙, 2003) 연구결과와 비슷한 결과를 보인다.

2) 아버지의 양육참여 일반적 경향

아버지의 양육참여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본 결과 4점 척도에서 평균 $M= 3.05(SD=.48)$ 으로 조금 높은 수준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평균 이상으로 나타난 박희선(2016), 박은경(2018), 김영란(2019)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하위요인별 수준을 살펴보면, ‘사회·정서지원’은 $M=3.19(SD=.57)$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놀이·문화지원’ $M=3.14(SD=.54)$ 와 ‘공동양육’ $M=3.14(SD=.58)$ 으로 동일 분포를 보였으며, ‘교육지원’은 $M=3.10(SD=.61)$, ‘자기성장’은 $M=2.78(SD=.67)$ 순으로 나타났다. 공동육아, 사회·정서지원, 놀이·문화지원, 교육지원, 자기성장 순으로 나타난 김영란(2019)의 결과와 비교해 볼 때, ‘공동양육’가 가장 높게 나타난 부분 외에는 비슷한 순서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사회·정서지원이 가장 높게 나타난 김산하(2015)의 연구와도 비슷한 수준이며, 자기성장의 경우 $M=2.78(SD=.67)$ 으로 전체평균 $M=3.05(SD=.48)$ 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는 부모 참여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양육에 대한 조언을 듣는 등 경험이 적다고 나타난 최영미(2001), 김지원(2010), 최하나(2011)의 연구와도 유사하다. 인구사회학적 배경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참여의 차이를 자세히 알아본 결과 아버지의 연령, 최종학력, 맞벌이 유무, 자녀의 성별, 자녀의 연령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김영란, 2019)는 결과와 비교할 때 본 연구도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3) 아버지의 자녀권리존중 일반적 경향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자녀권리존중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본 결과 4점 척도에서 $M=3.13(SD=.46)$ 으로 대체로 자녀에 대한 자녀권리존중 실행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아버지의 자녀권리존중 실행을 살펴본 김영란(2019)의 연구결과 4점 척도에서 평균 $M=3.02(SD=.41)$ 과 비슷한 수준이며, 그 외 자녀권리존중에 관한 연구(문정연, 2016; 홍선미, 2017; 김하정, 2018)와 부모의 아동권리 인식 차이를 연구한 이은주(2012)의 결과와 유사한 수준이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보호·도움, 참여, 의사존중, 배려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호·도움 영역이 $M=3.18(SD=.54)$ 와 참여영역이 $M=3.18(SD=.51)$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의사존중은 $M=3.13(SD=.55)$, 배려가 $M=3.08(SD=.51)$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대상이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로 선정되었으며, 정신적, 신체적으로 미성숙하고 보살핌과 따뜻한 관심이 필요한 유아기라는 시기상의 특수성 때문에 보호·도움, 참여의 항목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설명된다. 이는 자녀들이 실제로 누리는 권리는 보호적인 측면이 높다는 신지현(2004), 김영란(2019)의 결과와도 맥을 같이한다. 아버지의 자녀권리존중에서 배려가 $M=3.08(SD=.51)$ 으로 가장 낮게 나왔는데, 어머니의 자녀권리존중을 살펴본 문정연(2016)의 결과와 유사하고, 참여가 가장 낮게 나온 홍선미(2017)과 다소 차이는 있다.

2.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 양육참여, 자녀권리존중 상관관계

아버지가 경험한 원가족 경험과 양육참여, 자녀권리존중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모든 하위요인에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이 긍정적으로 높을 때, 아버지의 자녀권리존중 실행이 높고, 양육참여가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 요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원가족 경험과 양육참여 하위요인으로는 사회정서지원이 가장 높았고($r=.51, p<.01$) 자녀권리존중 하위요인으로는 배려, 보호·도움이 ($r=.48, p<.0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r=.48, p<.01$). 반대로, 가장 낮은 상관관계를 보인 요인은 첫째, 양육참여 하위요인으로는 자기성장이 ($r=.16, p<.01$)으로 가장 낮은 상관관계를 보였고, 자녀권리존중 하위요인으로는 의사존중이 ($r=.31, p<.01$)로 가장 낮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그리고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자녀권리존중의 하위항목 네 가지는 상관관계는 전 항목이 유의미하게 정적 관계를 나타났다. 이는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높을수록 자녀권리존중에 관한 인식과 실행력도 높아진다는 상관관계를 의미하며, 하위요인을 살펴보면, 양육참여가 높을 때, 자녀권리존중 하위요인인 배려가 가장 높았고, 의사존중이 가장 낮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높을수록 자녀권리존중에 관한 인식과 실행력도 높아진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는 김영란(2019)의 결과와 유사하며 아버지가 지각하는 아동기 시절인 원가족 부모와의 애착 경험이 긍정적인 사회화 경험을 한 아버지일수록 자신의 자녀양육참여 수준이 높아진다는 선행연구들(김정주, 2009; 권영임, 2012)의 결과와 일치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원가족 건강성을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아버지들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양육에 참여하고 있음을 밝힌 반대의 연구결과도 찾아볼 수 있다(Beaton, Doherty, & Rueter, 2003). 권영임(2012)의 연구에서도 일부 아버지들은 자신이 경험한 부정적인 양육경험과는 반대되는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였다. 이는 아버지들이 자신이 경험한 부정적 경험을 부정적 경험으로 자각하고 이를 자녀에게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 양육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함을 의미한다. 이런 상이한 연구결과에 대해 Beaton과 그의 동료들(2003)은 양육참여를 모델링과 보상가설로 설명한다. 즉,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원가족의 긍정적 경험을 모델링하거나, 원가족의 부정적인 경험을 통해 야기된 좌절이나 불만족과 같은 감정을 상쇄시키기 위한 보상의 결과로 일어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상적 아버지 역할(compensatory fathering)은 원가족의 부정적인 경험을 부정적 경험으로 자각한 아버지들에게서만 나타나며(권영임, 2012), 부정적 경험을 자각하지 못한 대다수의 아버지들은 자신이 경험한 부정적 양육경험을 그대로 답습하여 양육에 참여한다(이숙희 외, 2009; 최인혜, 2012). 이와 같은 연구들은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이 양육참여와 긴밀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원가족에서의 경험을 모델링하거나 또는 원가족에서의 부정적 경험을 보상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이 양육참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도 원가족 경험의 대표적 변인인 아버지의 원가족 건강성이 양육참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이 아버지와 자신의 자녀와의 관계, 더 나아가 자녀의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므로, 후속 연구를 통해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에 대한 연구, 구체적으로 자신의 부모 중 누구와의 원가족 경험이 아버지가

자녀를 양육할 때 영향을 더 미치는지에 대해 면밀히 밝혀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연구 요약 및 논의를 토대로 결론을 내리면 아버지 원가족경험이 자녀권리존중에 미치는 영향에서 양육참여는 유의미한 관계를 가진다. 이는 아버지 원가족경험과 자녀권리존중이 자녀 양육 시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심리적 변인들임을 알려준다. 아버지 원가족경험은 아버지가 아버지와 경험되어 남아있는 관계의 기억이 다음 자신의 자녀와의 관계와 양육참여와 연결되고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아버지 원가족 경험은 아버지 양육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며, 아버지 양육참여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높을수록, 자녀권리존중실천이 높아지는 것을 통해, 아버지가 스스로 양육참여가 높을 때, 아버지의 자녀권리존중 수준 정도와 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려 준다.

3.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이 자녀권리존중 실행에 미치는 영향에서 양육참여의 매개효과

아버지의 원가족경험이 자녀권리존중 실행에 미치는 영향에서 양육참여의 매개를 살펴보면, 아버지의 원가족경험이 자녀권리존중 실행에 미치는 영향에서 양육참여는 부분매개효과를 증명하였다. 이처럼 아버지의 원가족경험이 직접효과로 자녀권리존중실행을 위해 실증적인 역할을 하는 것과 동시에 양육참여를 매개로 자녀권리존중실행을 향상시키는 간접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양육참여의 매개효과 유의성을 살펴보기 위해 Sobel Test를 실행하여 검증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보여줌으로써 아버지의 원가족경험이 긍정적인수록, 자녀권리존중 실행이 향상되었고, 이때 양육참여는 자녀권리존중실행을 이전보다 더 높이는 긍정적인 매개변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자녀권리존중실행을 향상시킨다는 김영란(2019) 연구와 동일하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어머니의 원가족 경험이 자녀권리존중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연구한 것은(황소영, 2017; 김하정, 2018; 김경인, 2020 외) 있으나,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이 자녀권리존중에 미치는 영향을 본 선행연구가 전무하여, 연구결과를 토대로 볼 때 선행연구와 비교하면서 논의하는 점이 쉽지 않다. 그러나,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이 자녀권리존중 실행에 미치는 영향에 양육참여가 매개효과가 있음을 실증적으로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후속 연구를 통해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과 자녀권리존중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다각도로 밝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이 자녀권리존중에 미치는 영향에서 양육참여에 영향을 주는 것이 밝혀졌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보면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자녀권리존중의 중요성을 재고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서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과 양육참여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였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연구로 보인다. 앞으로 본 연구결과가 아버지의 자녀권리존중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지원하는 아버지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을 시사한다.

첫째, 본 연구는 우리 사회에서 영유아의 권리가 중요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모순된 상황에 주목하고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자녀권리존중 실행의 중요성과 그에 영향을 미치는 아버지 변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지닌다. 본 연구결과가 아버지의 자녀권리존중을 비롯한 아동 인권을 대하는 자세를 함양하고 더욱 제고할 수 있는 후속 연구에 의미 있는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둘째,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을 아버지와의 경험을 초점으로 살펴봄으로써, 아버지들이 경험한 원가족 경험에서 아버지와의 영향력의 중요한 부분이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더불어 자녀권리존중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아버지의 양육참여, 그리고 이러한 아버지 양육참여를 촉진하는 원가족 경험의 가치를 규명하며 자녀권리존중의 실천을 미래의 부모가 될 유아들에게 어떤 원가족 경험을 제공해주어야 하는가 돌아보게 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아버지의 양육참여 및 자녀권리존중실현에 영향을 주는 연구에 의미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이 자녀권리존중에 미치는 영향에서 양육참여의 매개효과를 조사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었으며 연구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설문지를 통해 답변을 받았는데, 스스로 자기 기입식으로 응답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본인에 대한 주관적 해석과 약간의 의도된 긍정적 평가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설문지와 함께 전문가에 의한 심층 면담과 같은 심층면접과 같은 ‘질적 접근’을 통해, 아버지의 문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는 온라인 설문으로 조사하였으나, 서울, 경기지역의 응답율이 84.4%이므로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수도 많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다른 지역까지 확대하여 더욱 신뢰성 있는 광범위한 표집 방법을 활용한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가 조사된 시기가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및 자녀의 안전을 위해, 연극, 공연관람, 여행 등 놀이·문화지원 형태의 양육참여가 이전보다 어려웠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코로나 상황이 종료되어, 일상생활이 회복된 상황에서 양육참여와 자녀권리존중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자녀권리존중 실행에 영향을 미치는 아버지의 원가족경험을 어릴 적 아버지에게 받은 경험만 원가족 경험으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 수행하는 양육참여와 자녀권리존중 실행 정도는 아버지에게서만 받았다고 보기는 다소 무리가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원가족 경험을 모두 포함하여 살펴보고 이들이 자녀권리존중 실행에 미치는 영향을 본 연구결과와 비교, 고찰하는 것도 의미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참고문헌

- 구광현(2001).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성역할 정체성과 성역할에 관한 자녀양육태도. **안양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vol.9, 197-218
- 권영임(2012). 아버지의 아동기 경험과 자녀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보육 행정교육연구**, 16(2), 125-142.
- 김경인(2020). 어머니의 아동기 경험과 부모역할만족도가 아동권리존중양육에 미치는 영향 : 양육행동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동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영란(2019).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자녀권리존중 실행과의 관계에서 부모효능감의 매개 효과. 가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주(2009).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사회·심리적 특성과 아동기 경험이 아버지 역할 수행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지원(2019). 어머니의 원가족 애착경험이 유아 자녀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 양육태도의 매개효과. 경희대학교 테크노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태순(2012). 아버지의 아동기 경험, 결혼 만족도 및 부모역할이 유아기 자녀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하정(2017).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아동기경험, 아동권리인식 및 아동권리존중 실행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라혜미(2012).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참여 관련 국내 연구동향 분석. 부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정연(2017). 유아 어머니의 양육특성이 자녀에 대한 아동권리존중 실행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민지혜(2013). 아버지 양육참여 유아의 정서지능 유아 문제행동간의 관계분석. 숙명여자대학교 원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미라(2010).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유아의 자아존중감 및 사회도덕 성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은경(2016).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원가족경험이 양육참여에 미치는 영향. 가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희선(2016). 아버지의 원가족 양육경험과 어머니의 문지기 역할이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미치는 영향. 가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효정, 김도연 (2015).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아동기 애착, 배우자의 부모역할 지지, 심리적 안녕감이 아버지의 부모역할수행에 미치는 영향. **열린부모교육연구**, 7(4), 147-164.
- 백경숙, 윤지영(2004). 부모역할만족도와 부모역할지능에 관한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회**, Vol.0(39)

- 보건복지부(2020).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0~2024)
- 서혜정(2015). 자녀권리존중 활동 실천에 대한 사례 연구: 수지 어머니의 사례를 중심으로. **열린부모교육연구**, 7(3), 177-202.
- 신지현(2004).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아동권리 인식 조사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안사라(2012). **아동권리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과 어머니의 양육태도와의 관계**.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우다정(2016). **어머니의 영아 권리인식과 실천수준 및 부모역할지능과의 관계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원수연(2014). **유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의 아동기 애착경험 및 부모역할 만 족도와 양육행 동 간의 관계**. 덕성여자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빛나(2018). **어머님의 행복감과 양육효능감이 아동권리존중을 지향하는 양육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미현(2014).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 양육참여 척도 개발 및 타당화**. 가천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서연(2018).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아동기경험이 유아권리인식에 미치는 영향 : 자 아존중감과 정서지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경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수정(2017).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아동권리인식과 양육효능감의 관계**. 덕성여자 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순형 외(2010). **부모교육**. 서울: 학지사.
- 이숙희, 고인숙, 심정선(2009). 부모가 지각한 원가족과 부모의양육스타일 및 세대 간 전이에 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4(2)
- 이윤나(2013).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직업 역할 만족도 및 부모역할 만족도와 양육행 동 간의 관계**. 가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윤정, 성소영(2013). **따른 어머니 성역할 인식과 유아의 성역할 고정관념 및 리더십의 관계**. **한국보육학회**, 13(1)
- 이은주(2012). **부모의 아동권리 인식과 양육태도와의 관계**.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진선, 정문자(2007). 어머니의 아동기 경험, 부모역할 만족도 및 배우자의 부모역할 지지와 아동의 지각한 어머니의 자녀양육 행동 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 45(5)
- 이혜정(2006). **어머니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 대구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영심(2014). **어머니의 아동기경험 및 부모역할만족도가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북대학교 생활문화대학원 석사논문.

- 장지현, 이완정(2011). 유아 어머니의 아동권리존중 실행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아동과 권리**, 15(3), 391-407
- 전주혜, 박정윤(2010).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원가족 경험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4(4), 127-150.
- 전현진, 박성연(1999). 부모의 아동기 경험, 인성 및 결혼만족도가 양육 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0(3), 153-169.
- 정미라, 강수경, 최은지(2013). 영,유아기 어머니의 원가족 양육경험과 생활만족도가 자녀가치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 20(2)
- 채진영(2011).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9(5), 75-83.
- 최영미(2001). **아버지의 유아기 자녀교육에 대한 인식 및 역할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인혜(2013). **부모의 원가족 경험과 부모-자녀간 상호작용과의 관계**.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하나(2011). **모-자녀간 정서적 친밀감과 형제 관계에 대한 모의 차별적 양육행동**. 명지대학교 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
- 한명숙(2007). **아버지의 놀이참여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은(2014). **아버지의 아동권리 인식이 양육참여에 미치는 영향과 양육참여의 매개효과**.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선미(2017). **어머니의 자녀권리존중 실행, 양육효능감, 모-자녀관계 및 만2세 영아의 정서조절능력 간의 관계**. 가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소영(2017).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아동기 경험, 아동관과 아동권리존중 양육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황옥경(2012). 영유아기 권리에 대한 유엔의 권고 분석.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일반 논평을 중심으로. **아동과 권리**.16(1), 27-49.
- 황현주(2012). 영아에 대한 아버지애착 관련변인. **한국영유아보육학회**, 73
- Bowlby, J. (1973). **Attachment and loss**. Vol. 2. Separation. NY: Basic Boo

ABSTRACT

**The Effect of the Original Family Experience of
Fathers with Early Childhood Children on Respect for
Children's Rights: the mediating effect of parenting
involvement**

Byun, Sung-eu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mpact of fathers' original family experiences on their respect for children's rights and the mediating effect of parenting involvement on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se two variables. To this end, an electronic questionnaire was administered to 291 fathers of young children aged 3-5 years. The data collected in this study were analysed using SPSS 25.0 to conduct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showed that, first, fathers' original family experience, parenting involvement, and fathers' respect for children's rights were generally positive; second, there were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fathers' original family experience, parenting involvement, and respect for children's rights. Third, fathers' family of origin experience has a significant effect on fathers' child rights-respecting behaviour, and fathers' parenting involvement partially mediates the causal relationship.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hat it reconsiders the importance of child rights respect among fathers of young children and objectively demonstrates the value of fathers' original family experience and parenting involvement as variables that influence child rights respect. It is hoped that the findings of this study will be used as a basis for the development of fatherhood education programmes to support fathers' respect for children's rights and to find concrete ways to implement them.

Keywords : Father's original family experience, Respect for children's rights, Parenting participation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실행과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

정명희**, 서혜전***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실행과의 관계에서 교사 개인 심리적 변인인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다. 연구 대상은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지역의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250명이었으며, 본 조사에 앞서 설문지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 2인의 검토, 보육교사 15명을 대상으로 문장의 이해도 및 적절성에 대한 예비조사를 거쳐 최종적인 설문지가 완성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 긍정심리자본,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실행 간의 상관관계에 있어서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실행은 직무스트레스와는 부적 관계를, 긍정심리자본과는 정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실행과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분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보육교사의 긍정심리자본의 증진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을 비롯한 다양한 보육교사 심리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제공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이는 보육교사들이 직무스트레스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긍정심리자본의 매개역할로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을 더 잘 실행하도록 돕기 때문이다. 이처럼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실행과의 관계에 있어 개인변인인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주제어: 긍정심리자본, 권리존중 보육, 영유아, 직무스트레스

※ 투고일 : 2023년 10월 30일 / 수정본 접수일 : 2023년 12월 17일 / 게재확정일 : 2023년 12월 19일

* 본 논문은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

** 대구한의대학교 석사

***대구한의대학교 아동복지상담학과 교수 (교신처자 child@dhu.ac.kr)

I. 서론

여성의 사회진출은 가정의 역할, 특히 자녀 양육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어린이집은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이 국가적인 범위로 확대되면서 질 높은 보육서비스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 그러나 보육을 책임지고 있는 질 높은 전문직 보육교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육교사들은 여전히 열악한 직무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요구되는 보육서비스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영유아의 진인적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역할이 중요한데, 이를 수행하는 보육교사의 자질과 전문성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학부모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국가 차원에서 보육의 질 향상에 대한 기대는 높아져 가고 있다. 이에 따라 교사에 대한 역할에 대한 기대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실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많은 직무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에는 사무행정처리, 인증평가준비, 동료교사와의 갈등, 영유아 발달에 대한 관찰, 급식지도, 영유아 지도, 수업 공개, 교수학습 지도, 학부모의 지나친 간섭과 갈등 등이 포함된다(전선균, 이대균, 2014). 송진숙 외(2010)는 보육교사가 다양한 역할 및 행동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고 순간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고도의 정신노동을 해야 하는 그 어떤 직종보다 더 복잡하고 다양한 직무스트레스를 겪게 된다고 말한다. 이런 다양한 직무스트레스로 인해 보육교사는 보육교사직분에 대한 사명감과 신념 저하, 무력감 등을 경험하고(김민선, 2015),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는 교사와 영유아들과의 관계와 상호작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한다. 변은경과 장경오(2015)는 직무스트레스에 장기간 노출된 보육교사의 경우 영유아에 대한 인내심이 저하되었고, 영유아와의 상호작용 빈도가 감소하였다고 보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 대처 방법을 찾는 노력들이 이루어져왔고, 그 중 보육교사 직무스트레스에 대처하는 기제로서 보육교사의 개인 심리 변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보육교사의 개인 심리 변인 중 긍정적인 심리발달 상태를 의미하는 긍정심리자본이 보육교사 직무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주요 변인으로 그 중요함이 강조된다(김규태, 최경민, 2015).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각각의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이 되기는 하나 모두가 스트레스로부터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되거나 부적응 상태에 빠지는 것이 아니며 역경을 견디고 극복하여 오히려 긍정적인 결과를 성취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개인의 긍정적 심리기반이 스트레스 대처 기제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긍정심리자본은 조직풍토와 구성원의 수행성과에 영향을 미치며(Luthans, Avolio & Avey, Norman, 2007), 긍정심리자본을 가진 직원들은 자신의 업무능력에 대한 자신감과 의지, 동기부여, 도전에 대하여 용기 있는 신념을 가지며(허명숙, 천명중, 2014). 자신의 직무상태에서 즐거움과 의미를 찾기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하도록 돕는다(조운서, 2014).

또한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요인은 자기효능감, 희망, 낙관주의, 탄력성으로 제안한 Luthans 외(2007)는 또 다른 연구(Youssef & Luthans, 2007)에서 탄력성이 높은 교사일 경우 조직에 대한 몰입, 직무만족감 및 행복감, 스트레스 상황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적극적으로 스트레스 상황을 대처하여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높아졌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문명란(2016)은 낙관적 태도(낙관주의)가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실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런 선행연구들을 통해 긍정심리자본은 직무스트레스와 교사의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실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 확대로 어린이집에서의 영유아 권리존중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누구보다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공적 책무가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아동학대와 같은 영유아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들이 각종 대중매체를 통해 간간히 보도되면서 어린이집에서의 권리

존중 뿐 아니라 보육교사의 영유아 권리 존중 보육 실행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요구가 높아지면서 영유아 권리 존중 보육 관련 여러 연구들(이경열, 박영신, 2015; 이영주, 최경, 2018; 이유미, 안지혜, 2014; 이진화, 2014; 지미선, 김진경, 2021)이 수행되었고, 이들 연구에서 마음챙김, 교사 효능감, 직무스트레스, 공감능력, 긍정심리자본, 직무만족도, 교육신념, 전문성, 조직몰입, 원장과 동료교사와의 관계 등을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 실행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밝히고 있다. 이 선행연구들은 보육교사라는 직무로 인해 오는 스트레스와 같은 변인은 보육교사가 영유아의 권리를 존중하는 보육을 실행하는데 어려움을 주는 요인이며, 반면에 긍정심리자본과 같은 개인 심리 변인은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을 잘 실행하도록 도움을 주는 요인임을 제시하고 있다.

선행연구의 결과들을 토대로 어린이집에서 실제 많은 직무 스트레스를 겪을 수 밖에 없는 보육교사들이지만 영유아 권리 존중 보육을 실행하도록 하는 교사 개인의 심리적 변인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을 의미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실행과의 관계에서 교사 개인의 심리 변인 중 긍정심리자본의 매개 효과를 보고자 한다. 교사 개인 심리 변인 중 긍정심리자본을 매개 변수로 보고자 한 이유는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긍정심리자본이 직무스트레스와도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실행과도 관련이 있음을 여러 선행연구에서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 긍정심리자본,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실행 간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가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 실행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영유아 권리존중보육실행과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의 매개 효과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대구시와 경북지역에 소재한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 25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대상인 보육교사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N=250)

구 분		빈도	백분율
연령	20대	21	8.4
	30대	63	25.2
	40대	122	48.8
	기타	44	17.6
	합계	250	
결혼여부	미혼	59	23.6
	기혼	191	76.4
	합계	250	
최종학력	2년제 전문대학	111	44.4
	3년제 전문대학	57	22.8
	4년제 대학교	72	28.8
	대학원	10	4.0
	합계	250	
근무경력	0~3년 이하	41	16.4
	4~6년 이하	79	31.6
	7~9년 이하	60	24.0
	10년 이상	70	28.0
	합계	250	
담당학급	영아반	176	70.4
	유아반	74	29.6
	합계	250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	49	19.6
	법인	46	18.4
	민간	108	43.2
	가정	19	7.6
	공공형	28	11.2
	합계	250	
보유자격증	보육교사 3급	3	1.2
	보육교사 2급	55	22.0
	보육교사 1급	172	68.8
	원장	20	8.0

2. 연구 도구

1) 직무스트레스 척도

본 연구에서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김하연(2015)이 Parker와 Decotiis(1983)와 탁진국(2002)의 척도를 재구성하여 사용한 척도를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보육교사가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상황에서 받는 직무스트레스로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울감 8 문항, 긴장감과 피로 6문항, 생활습관의 변화 4문항으로 총 18개 문항이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평정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를 사용하고 있다. 직무스트레스의 점수 범위는 18~9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직무스트레스 전체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923 이었으며, 스트레스 하위 영역별 구성과 신뢰도는 <표 2>와 같다.

<표 2> 직무스트레스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항목	문항수	문항번호	Cronbach's α
우울감	8	1~ 8	.888
긴장감과 피로	6	9~14	.874
생활습관의 변화	4	15~18	.699
전 체	18		.923

2)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실행 척도

본 연구에서 보육교사의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실행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척도는 김진숙, 서영숙(2012)이 개발하고 이미향(2020)이 인용한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실행 수준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2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루일과 존중 19문항, 아동최선의 이익 21문항으로 총 40문항이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평정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를 사용하고 있다.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실행의 점수범위는 40~200점이고, 높은 점수일수록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실행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연구에서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실행척도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α 값은 .958 이었고, 문항구성 및 신뢰도는 <표 3>과 같다.

<표 3>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실행 문항구성 및 신뢰도

항목	문항수	문항번호	Cronbach's α
하루일과 존중	19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922
아동최선의 이익	21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935
전 체	40		.958

3) 긍정심리자본 척도

보육교사의 긍정심리자본을 측정하기 위해 Luthans 외(2007)의 기존 측정도구를 한혜영(2013)이 번안하고 타당도를 검증한 질문지를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다. 본 측정도구는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기 효능감 6문항, 낙관주의 6문항, 희망 6문항, 탄력성 6문항으로 총 24문항이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평정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를 사용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심리자본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전체 신뢰도는 .959이었으며, 문항구성 및 신뢰도는 <표 4>와 같다.

<표 4> 긍정심리자본 문항구성 및 신뢰도

항목	문항수	문항번호	Cronbach’s α
자기 효능감	6	21, 18, 15, 11, 6, 1	.839
희망	6	3, 5, 10, 13, 17, 23	.870
낙관주의	6	2, 8, 12, 16, 20, 24	.826
탄력성	6	4, 7, 9, 14, 19, 22	.866
계	24		.959

3. 연구절차

본 연구의 절차진행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설문지 작성은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문헌과 선행연구들을 고찰하여 본 연구에 적합한 측정도구를 수집 후 작성하였다. 본 조사에 앞서 연구에 사용할 설문지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 2인의 검토를 거친 후, 보육교사 15명을 대상으로 문장의 이해도 및 적절성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수정하였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완성된 설문지를 대구광역시와 경북지역에 소재한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300명을 대상으로 2020년 10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지 배부방법은 사전에 전화로 연구 목적을 안내하고 승인을 받은 후, 어린이집에 배부하고 정해진 기일에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회수하였다. 설문지는 300부를 배부하여 267부(83%)가 회수되었고, 이 중 응답이 불성실한 17부를 제외한 250부를 본 연구에 활용하였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는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아동권리 존중 보육실행과의 관계에 대해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SPSS Ver. 25.0을 통해 변수의 기술통계, 상관관계,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보육교사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고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 긍정심리자본,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실행 수준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확인하였다.

둘째,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 긍정심리자본,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실행 수준과 각 변인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관계를 실시하였다.

셋째,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영유아 권리존중보육실행과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과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본 연구는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실행과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연구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 긍정심리자본,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실행 간의 상관관계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 긍정심리자본,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실행 수준과 각 변인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관계를 실시한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직무스트레스 하위변수인 우울감은(M=2.62)이며, 긴장감과 피로(M=2.62), 생활습관의 변화(M=2.46)으로 나타났다.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실행의 하위변수인 하루일과 존중(M=2.59), 아동최선의 이익(M=4.27)나타났고, 긍정심리자본의 하위변수인 자기 효능감(M=4.06), 희망(M=4.16), 낙관주의(M=3.77), 탄력성(M=3.83)으로 나타났다. 직무스트레스는 긍정심리자본($r=-.35\sim-.41$)에 부(-)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경우 긍정심리자본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직무스트레스는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실행($r=-.28\sim-.35$)에 부(-)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경우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실행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긍정심리자본은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실행($r=.49\sim.58$)에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긍정심리자본이 높을수록 영유아권리존중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실행과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

<표 5> 직무스트레스,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실행, 긍정심리자본 간의 상관관계 (N=250)

항목	평균	편차	직무스트레스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실행		긍정심리자본				
			우울감	긴장감과 피로	생활습관의 변화	하루일과 존중	아동최선의 이익	자기 효능감	희망	낙관 주의	탄력성	
우울감	2.62	6.15	-									
직무스트레스	긴장감과 피로	2.62	4.62	.71***	-							
	생활습관의 변화	2.46	2.82	.49***	.59***	-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실행	하루일과 존중	2.59	11.83	-.35***	-.24***	-.27***	-					
	아동최선의 이익	4.27	9.61	-.32***	-.28***	-.27***	.78***	-				
긍정심리 자본	자기 효능감	4.06	11.18	-.35***	-.34***	-.35***	.52***	.58***	-			
	희망	4.16	19.67	-.38***	-.35***	-.38***	.53***	.56***	.84***	-		
	낙관 주의	3.77	3.44	-.41***	-.38***	-.41***	.49***	.56***	.86***	.88***	-	
	탄력성	3.83	3.43	-.39***	-.39***	-.41***	.49***	.56***	.87***	.87***	.86***	-

***p<0.001

2.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가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 실행에 미치는 영향

1)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가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실행 하위변수인 '하루일과 존중'에 미치는 영향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가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실행 하위변수인 하루일과 존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가 <표 6>에 제시 하였다. 보육교사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모형 1에서는 연령($\beta = .21, p < 0.05$), 담당유아반($\beta = -.20, p < 0.01$), 어린이집 유형($\beta = -.19, p < 0.01$)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화 계수를 비교하여 볼 때 담당유아반이 가장 높은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모형 설명량은 9%이었다($F = 4.45, p < 0.001$). 직무스트레스를 추가한 모형 2에서는 담당유아반($\beta = -.18, p < 0.01$), 어린이집 유형($\beta = -.12, p < 0.05$), 우울감($\beta = -.26, p < 0.01$), 생활습관의 변화($\beta = -.15, p < 0.05$)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화 계수를 비교하여 볼 때 우울감이 가장 높은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모형 설명량은 18%이었다($F = 6.25, p < 0.001$).

<표 6> 직무스트레스가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실행(하루일과 존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N=250)

구분	모형 1			모형 2		
	B	β	t	B	β	t
연령	4.22	.21	2.46*	3.07	.15	1.86
결혼여부	.94	.04	.52	.15	.01	.09
최종학력	-.24	-.01	-.20	-.78	-.04	-.69
근무경력	-1.24	-.06	-.90	-.37	-.02	-.28
담당유아반	-4.17	-.20	-3.21**	-3.78	-.18	-2.99**
어린이집 유형	-3.65	-.19	-3.03**	-2.33	-.12	-1.98*
자격증	-.99	-.05	-.72	-.36	-.02	-.27
우울감				-.40	-.26	-2.98**
긴장감과 피로				.10	.05	.52
생활습관의 변화				-.52	-.15	-2.02*
R ²	.11			.21		
Adj-R ²	.09			.18		
F(df1, df2)	4.45***(7, 241)			6.25***(3, 238)		

* $p < 0.05$, ** $p < 0.01$, *** $p < 0.001$

2)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가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실행 하위변수인 '아동최선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가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실행 하위변수인 아동최선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가 <표 7>에 제시 하였다. 보육교사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모형 1에서는 연령($\beta = .25, p < 0.01$), 어린이집 유형($\beta = -.23, p < 0.01$)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화 계수를 비교하여 볼 때, 어린이집 유형이 가장 높은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모형 설명량은 7%이었다($F = 3.69, p < 0.01$). 직무스트레스를 추가한 모형 2에서는 연령($\beta = .20, p < 0.05$), 어린이집 유형($\beta = -.17, p < 0.01$)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화 계수를

비교하여 볼 때 연령이 가장 높은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모형 설명량은 15%이었다 (F=5.28, p<0.001).

<표 7> 직무스트레스가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실행 하위변인 아동최선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N=250)

구분	모형 1			모형 2		
	B	β	t	B	β	t
연령	5.83	.25	2.89**	4.83	.20	2.47*
결혼여부	-.44	-.02	-.21	-1.16	-.04	-.56
최종학력	-.04	.00	-.03	-.55	-.02	-.41
근무경력	-1.76	-.08	-1.09	-.68	-.03	-.44
담당유아반	-2.91	-.12	-1.91	-2.72	-.11	-1.82
어린이집 유형	-5.07	-.23	-3.59***	-3.79	-.17	-2.73**
자격증	-1.12	-.05	-.69	-.40	-.02	-.26
우울감				-.25	-.14	-1.55
긴장감과 피로				-.25	-.10	-1.09
생활습관의 변화				-.46	-.11	-1.49
R ²	.10			.18		
Adj-R ²	.07			.15		
F(df1, df2)	3.69**(7, 242)			5.28*** (3, 239)		

*p<0.05, **p<0.01, ***p<0.001

3.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영유아 권리존중보육실행과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 분석

1)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 검증

매개변수는 독립변수와 결과변수 간의 관계가 어떠한지 설명해준다.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방법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 절차는 <표 8>과 같다. 이 방법에 따라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3개의 회귀방정식이 필요하다. 첫 번째 방정식(1단계)은 독립변수(직무스트레스)의 잠재적 매개변수(긍정심리자본)에 대한 회귀방정식이며, 두 번째 방정식(2단계)은 독립변수(직무스트레스)의 종속변수(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실행)에 대한 회귀방정식이다. 세 번째 방정식(3단계)은 독립변수(직무스트레스)와 잠재적 매개변수(긍정심리자본)를 동시에 고려하여 종속변수(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실행)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회귀방정식이다. 1단계와 2단계에서의 회귀계수 값은 모두 유의해야 하며 3단계에서는 매개변수의 회귀계수는 유의하지만 독립변수의 회귀계수는 유의하지 않거나 최소한 2단계의 회귀계수보다 감소해야 매개변수의 매개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때 3단계에서 독립변수의 회귀계수가 유의하지 않은 경우를 완전매개변수(perfect mediator)라 하

고, 독립변수와 회귀계수가 유의하지만 제2단계 회귀계수보다 감소한 경우를 부분매개변수(partial mediator)라고 한다(Baron & Kenny, 1986).

<표 8> 매개효과 검증 절차

구분	회귀식의 독립변수	회귀식의 독립변수
제 1단계	독립변수	매개변수
제 2단계	독립변수	종속변수
제 3단계	독립변수+매개변수	종속변수

회귀분석 결과를 해석하기에 앞서, 보육교사의 아동존중 보육실행에 미치는 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중공선성 통계치(Collinearity Statistics)인 VIF(Variance Inflation Factor)계수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든 변수들은 VIF값이 전부 10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이 존재하지 않았을 때, 회귀분석을 시행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이것을 근거로 아래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위에서 제시한 Baron과 Kenny(1986)의 절차에 따라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매개변수인 긍정심리자본, 종속변수인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실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표 9>와 같다.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실행간 관계에 긍정심리자본이 매개하는지 살펴본 결과는 가설검증 1단계에서 직무스트레스가 매개변인인 긍정심리자본에($\beta=-.46, p<0.001$) 유의하게 설명하였고, 2단계 독립변인인 직무스트레스가 종속변인인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실행($\beta=-.36, p<0.001$)에 유의하게 영향력을 미쳤다. 3단계 직무스트레스와 긍정심리자본,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실행을 동시에 투입하였을 때 직무스트레스가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실행($\beta=-.11, p<0.05$)에 유의하게 영향력을 미쳤으며, 긍정심리자본이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실행에($\beta=.55, p<0.001$)에 유의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에서의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력이 유의하였지만, 2단계 ($\beta=-.36, p<0.01$)에 비해 3단계($\beta=-.11, p<0.05$)에서의 β 값이 증가하였고 상대적 설명력인 R^2 값 역시 매개변인인 긍정심리자본이 함께 포함되었을 때 $R^2=.13$ 에서 $R^2=.37$ 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무스트레스와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실행 간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이 부분매개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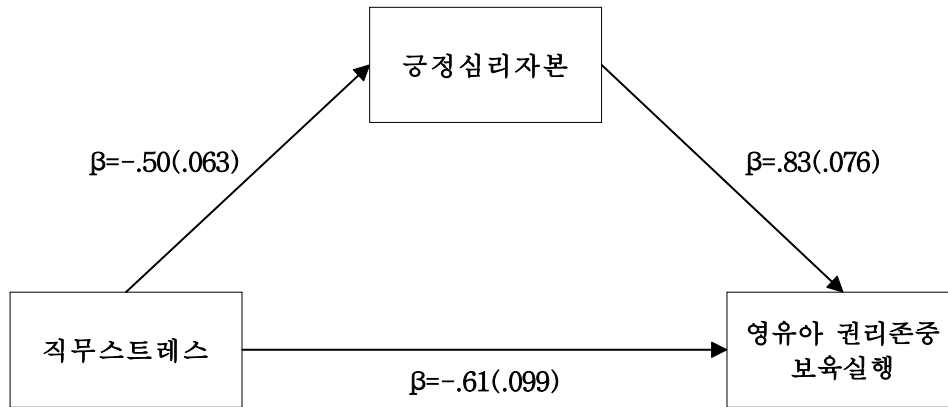
<표 9>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가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실행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 (N=250)

구분	변수	B	β	t	F	R^2
1단계 독립→매개	직무스트레스→ 긍정심리자본	-.50	-.46	-8.06***	65.03***	.21
2단계 독립→종속	직무스트레스→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실행	-.61	-.36	-6.14***	37.72***	.13
3단계 독립·매개 →종속	직무스트레스→ 영유아권리존중보육 실행 긍정심리자본→ 영유아권리존중보육 실행	-.19 .83	-.11 .55	-1.20* 9.68***	72.84***	.37

* $p<0.05$, ** $p<0.01$, *** $p<0.001$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확인한 바와 같이 직무스트레스와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실행 간에서 긍정심리자본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직무스트레스와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실행 간 긍정심리자본의 부분 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두 변수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검증해보기 위한 단순매개 한계치를 구하는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매개효과 검증경로를 나타내면[그림 1]과 같다.



[그림 1] 직무스트레스가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실행 간 긍정심리자본 매개모형

Sobel test로 검증한 결과, Z값은 5.442으로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p<.001)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긍정심리자본이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실행 관계를 유의하게 매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Sobel Test를 실시한 그 결과는 <표 10>와 같다.

<표 10> Sobel Test 결과 (N=250)

경로	a(SEa)	b(SEb)	Zab
직무스트레스 → 긍정심리자본 →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실행	-.50(.063)	.83(.076)	5.442***

***p< 0.001

V. 논의 및 결론

이 연구의 목적은 보육교사의 효과적인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실행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영유아 권리존중보육실행과의 관계에 긍정심리자본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 긍정심리자본,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실행 간의 상관관계에 있어서 직무스트레스는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실행, 긍정심리자본과 부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고, 긍정심리자본은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실행과 정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높은 직무스트레스는 낮은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실행과 낮은 긍정심리자본과 연관이 있음을 설명하는데 이경열과 박영신(2015)의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둘째, 이를 토대로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가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 실행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는 영유아의 권리존중보육실행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보육교사가 원장, 동료교사,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스트레스가 많거나 직무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실행은 낮아짐을 의미하는 것으로, 김신애(2018)와 서정은(2015)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며,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가 교사-영유아간의 상호작용의 질과 관계가 있다는 연구(신혜영, 2004)와 맥락을 같이한다. 반면 홍효희(2017)의 연구결과에서는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가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실행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영유아 인권교육, 직무스트레스 예방 교육 등 보육교사들의 영유아권리존중 인식과 실행수준 개선에 의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셋째,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실행 간에서 긍정심리자본이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실행 간의 관계에 긍정심리자본이 매개하는지 살펴본 결과 유의하게 설명하였고, 독립변인인 직무스트레스가 종속변인인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실행에서도 유의하게 영향력을 미쳤다. 또한 직무스트레스와 긍정심리자본,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실행을 동시에 투입하였을 때도 직무스트레스가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실행에 유의하게 영향력을 미쳤으며, 긍정심리자본이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실행에 유의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력이 유의하였지만, 매개변인인 긍정심리자본이 함께 포함되었을 때는 직무스트레스와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실행 간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이 부분매개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독립변수인 직무스트레스는 종속변수인 영유아 권리존중보육의 실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다. 그러나 매개변수인 긍정심리자본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서 작용 할 때에는 직무스트레스가 영유아 권리존중보육의 실행에 미치는 영향정도가 감소되는 것이다. 김규태, 최경민(2015)은 긍정심리자본은 직무스트레스를 해소함과 동시에 조직몰입과 아동권리 존중을 향상시키는 주요한 변인으로 작용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 연구를 살펴볼 때, 긍정심리자본이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매개 효과가 완충되어 부분적으로 나타난 이유는 긍정심리자본의 효과가 매개 효과 외 다른 영향력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 볼 수 있다. 이 연구 결과는 보육교사가 직무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어도 긍정심리자본을 갖고 있는 경우 보육교사의 가장 본질적 주요 업무인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실행 정도를 높일 수 있음을 말해준다. 즉 직장동료나 가족과 친구 등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인간관계에서 충분한 긍정심리자본을 받는 보육교사는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자신의 역할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강정희, 2015) 때문에, 영유아들의 권리를 존중하는 보육을 실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보육교사의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 실행을 높이기 위해 보육교사의 긍정심리자본을 강화시켜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보육교사에게 부여된 직무를 수행하고 영유아 권리존중보육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보육교사의 개인의 심리변인인 긍정심리자본이 매우 중요한 자원이 된다는 것을 알아보았다. 아울러 긍정심리자본이 높은 보육교사들은 높은 수준으로 인식되는 직무스트레스를 낮추고,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실행을 실천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는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실행과의 관계를 인식하고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어린이집 및 보육 정책 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보육교사의 긍정심리자본의 개발과 강화에 힘쓰고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를 낮추어 보육교사는 자신의 긍정적인 심리상태를 기반으로 하여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실행을 통해 영유아에게 질 높은 보육 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추후 연구 및 프로그램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교사의 긍정심리자본을 증진하고 보육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보육교사가 다양한 실무 경험을 통하여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교사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보육교사는 스스로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연구를 통하여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강화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영유아 교사의 권리를 법과 제도 측면에서의 개선과 더불어 보육교사의 스트레스 감소 및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긍정적인 에너지 공유를 위한 스트레칭, 보수교육, 다양한 활동프로그램 등 구체적인 프로그램 교육 개발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보육교사들이 일시적인 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직무스트레스와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실행에 대해 매개변인으로 사용된 긍정심리자본으로 제시된 매개변인 이외에 다른 다양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매개변인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보육교사들이 소속된 보육시설의 환경이나 학부 모듈과의 관계 등도 매개변수 역할로 작용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다양한 매개변수들을 고려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강정희(2015). 유아교사의 회복탄력성 및 교수효능감이 조직 몰입도에 미치는 영향. 군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규태, 최경민(2015). 초등교사의 긍정심리자본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열린교육연구**, 23(2), pp.201-225.
- 김민선(2015). 유아교사의 전문성 인식과 직무스트레스가 교사-유아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덕성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신애(2018). 보육교사의 전문성인식, 교사효능감, 직무스트레스가 영유아 권리존중 실행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진숙, 서영숙(2012).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실행 내용 항목: 보육교사가 인식한 영유아권리존중 보육의 실행내용을 중심으로. **한국보육지원학회지**, 8(3), pp.133-162.
- 김하연(2015). 직무요구 특성이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명란(2016). 보육교사의 자아탄력성과 직무만족도가 영아권리존중보육실행에 미치는 영향. 목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변은경, 장경오(2015). 보육교사의 자아 존중감, 직무스트레스가 교사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6(6), pp.3982-3990. 경기: 정민사.
- 서정은(2015). 유아의 도전행동에 대한 보육교사의 지도전략과 직무스트레스, 자아 존중감, 영유아 인권인식 관계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송진숙, 김규수, 송진영(2010). 유아교육기관 교사의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65, pp.105-123.
- 신혜영(2004). 어린이집 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효능감이 교사 행동의 질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경열, 박영신(2015). 보육교사의 마음챙김, 직무 스트레스, 교사 효능감 및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실행 간의 관계. **생애학회지**, 5(3), pp.47-63.
- 이미향(2020). 보육교사의 아동권리 인식 및 보육신념이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실행에 미치는 영향. 배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주, 최경(2018). 보육교사의 긍정심리자본과 직무만족도가 영유아권리존중 보육 실행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5(4), 53-70.
- 이유미, 안지혜(2014). 유아교사의 전문성이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실행에 미치는 영향. **유아행정보육복지연구**, 18(3), pp.239-259.
- 전선균, 이대균(2014). 가정어린이집 교사의 어려움과 보람에 관한 연구.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5(1), pp.253-282.
- 조운서(2014). 긍정심리자본과 조직 유효성의 관계 분석.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교육학회지**, 12(1), pp.57-76.
- 지미선, 김진경(2021). 유아교사의 긍정심리자본, 공감능력, 직무스트레스가 유아권리 존중실행에 미치는 영향. **가정과삶의질학회춘계학술대회자료집**, 265-266.
- 한혜영(2013). 대학생의 유머감각이 긍정심리자본과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명숙, 천명중(2014). 리더의 피드백, 긍정심리자본, 개인 창의성 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연구: 부정

- 피드백 수용의 조절역할. **대한경영학회지**, 27(10), pp.1531-1562.
- 홍효의(2017). 어린이집 교사의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실행 수준, 교사민감성 및 직무스트레스 간의 관계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Luthans, F. Avolio, B, Avey. J. B. & Norman, S. M.(2007).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Measurement and relationship with performance and satisfaction, *Personnel psychology*, 60(3), p545-550.
- Parker, D. F. & Deccotiis, T. A.(1983). Organizational determinants of job stress.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performance*, 32(2), p160-77.
- Youssef, C. M. & Luthans, F.(2007). Positive organizational behavior in the workplace: The impact of hope, optimism, and resilience, *Journal of management*, 33(5), p774-800.

Abstract

The mediating effect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care teachers' job stress and childcare practices that respect the rights of young children

Jeong, Myunghee

Suh, HyeJe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 teacher's psychological variab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care teachers' job stress and childcare practices that respect the rights of young children.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250 childcare teachers working at daycare centers in Daegu City and Gyeongsangbuk-do. Prior to the main survey, the questionnaire was reviewed by two relevant experts to evaluate its appropriateness, and the final questionnaire was completed after a preliminary survey of 15 child care teachers on the understandability and appropriateness of the phras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in the correlation between childcare teachers' job stress,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childcare practices respecting the rights of young children, it was found that childcare practices that respect the rights of young children had a negative relationship with job stress and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Secondly,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was found to b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artial mediating variab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care teachers' job stress and childcare practices that respect the rights of young children.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was suggested that a variety of psychological support systems for child care teachers, including programs that promote the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f child care teachers, need to be established and provided. This is because even if childcare teachers have job stress, the mediating role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helps them to better implement childcare that respects the rights of young children.

Key Word: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Job stress, childcare practices that respect the rights of young children

「아동중심실천연구」 연구윤리 규정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아동중심실천학회 회원들의 연구윤리 확립과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검증을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장 연구관련 윤리 규정

제2조(적용대상) 본 규정은 한국아동중심실천학회의 모든 회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1. 본 규정에서 제시하는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는 연구제안, 수행, 결과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이중게재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 ② "변조"는 연구 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③ "표절"은 이미 발표되거나 출간된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④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⑤ "이중게재"는 연구자 본인의 동일한 연구 결과를 인용표시 없이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출간하는 경우 또는 연구데이터가 같고 대부분의 문장이 같은 경우를 말한다. 학위 논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기타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을 말한다.

제4조(윤리규정 서약) 한국아동중심실천학회의 회원은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해야 한다. 기존 회원은 윤리규정 발표시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5조(연구자 윤리) 연구자는 논문의 투고 및 출판 시, 다음 각 호의 연구자 윤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자신의 학력, 경력, 자격, 연구업적 및 결과 등에 관하여 허위진술 하지 않아야 한다.
2. 연구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업적을 인정받는다.
3. 논문이나 기타 출판 업적의 저자(역자),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기여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4. 학위논문의 일부를 정리하여 게재하는 경우 학생이 제1저자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저자의 소속은 연구를 수행할 당시의 소속으로 명기하되, 투고 시점에 소속이 변경된 때는 각주에 그 사실을 적절하게 표기한다.
6. 연구 수행과정에서 학술 외적인 행정적 기술적 지원을 주신 분들께 사의(acknowledgement)로 그 내용을 밝힐 수 있다.
7. 연구논문과 관련된 사항을 각종 인쇄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각종 매체를 통한 강연 및 발표 시, 과학적 근거가 있는 전문지식과 사실에 근거하여 진술해야 한다.
8. 인간 및 인체유래물의 연구 또는 배아나 유전자 등을 다루는 연구는 원칙적으로 IRB 승인을 권장한다. IRB 승인을 득한 경우 해당 논문에 이를 명기한다.

제6조(편집위원 윤리) 편집위원(회)은(는) 다음 각 호의 편집위원 윤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편집위원(회)은(는) 투고된 논문의 게재여부 결정 등 학술지에 게재되는 모든 출판물에 대해 책임을 지며, 심사과정의 진실성을 확인하고 편집과정 참여자를 관리 감독한다.
2. 편집위원(회)은(는)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3.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함으로써 객관적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4. 편집위원회는 명백한 오류, 왜곡된 결과 출판시 즉시 수정하고 저자의 소속기관에 이를 알림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심사위원 윤리)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심사윤리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1. 공정성. 심사위원은 객관적 기준에 의거 논문을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사적인 관계에 따라 논문을 통과시키는 행위,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는 행위, 심사자 본인의 학술적 해석과 상충 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키는 행위 등이 해당한다.
2. 연구자 존중. 심사위원은 해당 영역의 전문가로서 연구자의 인격과 학술적 전문성을 존중해야 한다.
3. 비밀준수.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심사 대상 논문의 내용을 보여주거나 논의하지 않는다.

제8조(연구윤리 요약서 등) 논문 투고 시 대표저자(교신저자 포함)는 논문표절검사 결과와 함께 ‘연구윤리 요약서’를 작성하여 투고논문 원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논문은 심사에서 제외된다.

제 3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제9조(기능) 연구윤리위원회는 한국아동중심실천학회 회원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연구윤리 확립에 관한 사항
2. 연구부정행위의 예방, 조사에 관한 사항
3. 제보자 보호와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4. 연구윤리 위반 검증, 검증결과처리와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5.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0조(구성)

1. 연구윤리위원회는 편집이사를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편집이사가 담당한다.
2. 위원은 학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당해 직책의 임기와 동일하다.
3.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별도의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4. 위원회의 업무 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1조(회의)

1.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장은 위원회의 성립에 있어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3.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4.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5. 조사대상 연구에 관련된 위원은 해당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12조(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1.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해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멸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에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위원회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5.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 회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 4장 연구윤리 위반 검증절차

제13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1. 회원은 다른 회원이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할 경우 윤리규정을 환기시킴으로써 그 회원으로 하여금 문제를 바로 잡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제보자는 한국아동중심실천학회 사무국에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실명으로 제보할 수 있다. 단, 익명으로 제보하고자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논문명(또는 연구과제명)과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논문심사자는 심사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의심이 가는 경우 확고한 증거가 없더라도 편집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4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1. 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피조사자는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2.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해당 연구기관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 보관 등을 할 수 있다.

제15조(연구윤리위반 검증시효)

1.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2. 5년 이전의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피조사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5년 이내에 후속 연구의 기획 및 연구비 신청, 연구수행, 연구결과 보고 및 발표에 사용하였을 경우와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위협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6조(연구윤리 검증원칙)

1. 부정행위 사실 여부 입증책임은 본 학회와 연구윤리위원회에 있다. 단, 피조사자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였거나 제출을 거부할 경우 요구자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할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3. 본 학회의 장은 연구윤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예비조사)

1. ‘예비조사’는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2. 예비조사 결과 피조사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본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증거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이전에도 본 학회장의 승인을 얻어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예비조사에서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는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 사유를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단, 익명 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4. 제보자는 예비조사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구윤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18조(본조사)

1. ‘본조사’는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진행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본 조사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3.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는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19조(판정)

1. ‘판정’은 본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2. 예비조사 착수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조사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한다. 단, 이 기간 내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그 사유를 문서화하여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연구윤리위원회는 이의신청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접 재조사를 실시한다.

제20조(결과통지)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없이 제보자 및 피조사자 등 관련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제 5장 후속조치

제21조(후속조치)

1. 연구부정행위 확인 판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제재를 가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① 연구부정 논문의 게재불허
 - ② 게재된 논문의 경우 학회지 논문목록에서 삭제하고 게재취소 사실을 학회 홈페이지와 학술지를 통하여 공지
 - ③ 한국아동중심실천학회 회원 및 관련 학술기관에 공지
 - ④ 회원자격의 박탈 또는 정지
 - ⑤ 기타 적절한 조치
2. 제1항 제②호의 공지는 저자명, 논문명, 논문수록 권(호), 취소일자, 취소 이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제1항 제④호의 박탈 또는 정지 기간은 부정행위 과중에 따라 위원회에서 정한다.
4. 위원회는 본 학회의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서는 회원자격을 박탈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제22조(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 작성하여 지체없이 관련자(제보자, 피조사자 등)에게 통지한다.

제23조(재조사)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명예회복 등 후속조치) 조사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5조(기록보관 및 공개)

1.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판정결과는 학회 상임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참여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결의로 공개대상에서 제할 수 있다.

본 규정은 2021년 3월 4일 부터 시행한다.